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 분석

2018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주 현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 분석

김 경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뷰티융합학과 메이크업·특수분장전공

김 주 현

인 준 서

김주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논문 개요

해체주의는 문학, 예술 및 영화비평으로 확산되었으며, 현대의 해체현상으로 인해 예술분야는 다양한 모습으로 해체, 분화되고, 재결합되면서 표현되고 주목 받고 있다.

해체주의 메이크업은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메이크업으로 기존 메이크업을 탈피해 파괴성, 이질성, 탈중심성, 부적합성 등을 나타내고, 인정하며 조형요소인 얼굴을 해체해 새롭게 재구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존 갈리아노(Juan Carlos Antonio Galliano)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해체주의 특성을 도출하여 메이크업 요목을 분석함으로써, 메이크업에서의 해체주의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 메이크업 사진의 선정기간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존 갈리아노가 2005년~2017년 본인의 고유브랜드로 활동한 시기와, 2005년~2011년 크리스찬 디올에서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한 시기, 2015년~2017년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수석디자이너로 현재까지 활동중인 사진, 총 450장의 사진을 사용하였다. 선정한 사진을 해체주의 특성 흔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구분하였으며, 눈썹, 눈, 입술, 볼, 얼굴로 메이크업 요목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는 해체주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성을 도출하고, 사진을 메이크업 요목을 나누어 분석한 후 요목들에 관한 상관관계와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기간별 차이,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요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체주의 특성 중 흔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미 불확정성, 산중, 탈현상, 대리보충, 차연 순으로 나타났다.

눈썹 형태에서는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다양한 색상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눈에서는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무형태가 가장 낮은 비율로 관찰되었다. 입술은 정상형태가 가장 높게, 이색색상 사용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볼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높게, 이색색상 사용형태가 가장 낮게 표현되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서는 구상적문양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패치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해체주의를 브랜드별로 분류하였을 때, 존 갈리아노는 흔적(26.0%)이 가장 높았고, 크리스찬 디올도 흔적(24.7%)이 가장 높았다. 메종 마르지엘라에서는 산중(3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x^2=106.04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으며, 해체주의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썹 형태를 브랜드 별로 분류하였을 때, 존 갈리아노와 디올에서는 라인 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다양한 색상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메종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높게, 위치이탈형태가 가장 낮게 표현되었다($x^2=163.486$,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고, 각 브랜드별로 눈썹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에서 존 갈리아노는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오브제의 변형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디올에서도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무형태가 가장 낮았다. 메종에서는 추상적문양이 가장 높았고, 오브제의 변형 비율이 가장 낮았다($x^2=103.76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으며, 눈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술에서는 존 갈리아노, 디올, 메종 모두 정상형태가 가장 높았고, 이색색상 사용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x^2=8.194$,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

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각 브랜드별로 입술 형태는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볼에서 존 갈리아노는 확장형태와 무형태가 가장 높게, 이색색상 사용형태가 가장 낮았고, 디올과 메종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높게, 이색색상 사용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x^2=58.653$, $p<.05$). 얼굴에서는 존갈리아노, 디올, 메종 모두 구상적문양이 가장 높았고, 패치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x^2=39.347$,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으며, 볼과, 얼굴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을 때, 눈썹과 눈, 입술, 볼, 얼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눈썹과 눈($x^2=.225$, $p<.05$), 볼($x^2=-.122$, $p<.05$)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관계의 방향은 달랐으며, 눈은 얼굴($x^2=.106$,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입술은 얼굴($x^2=-.173$, $p<.0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해체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체주의 특성을 가진 메이크업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이미지 분석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3
1. 해체주의	3
2. 패션쇼 메이크업	14
3. 존 갈리아노	25
III. 연구방법	28
1. 연구문제	28
2. 측정도구	28
3. 해체주의 특성종류 및 메이크업 형태분석	33
4. 존 갈리아노 패션쇼의 요목에 따른 신뢰도	39
IV. 연구결과	41
1. 전체 특성별 메이크업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	41
2. 연도별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44
3. 브랜드별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51
4.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57
5. 상관관계 분석	64

V. 결 론65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7
<표 2> 연도별 연구대상	30
<표 3>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형태 분석요목	34
<표 4> 메이크업 형태 요목별 사진	38
<표 5> 3인의 상호간의 일치도 예	39
<표 6> 분석요목의 종류와 종합적 신뢰도의 값	40
<표 7> 브랜드별 빈도 분석	41
<표 8> 연도별 빈도 분석	41
<표 9> 해체주의의 특성별 빈도 분석	42
<표 10> 메이크업에 따른 특성별 빈도 분석	43
<표 11> 연도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	45
<표 12> 연도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	46
<표 13> 연도별 눈 형태 특성 차이	47
<표 14> 연도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	48
<표 15> 연도별 볼 형태 특성 차이	49
<표 16> 연도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50
<표 17> 브랜드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	51
<표 18> 브랜드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	52
<표 19> 브랜드별 눈 형태 특성 차이	53
<표 20> 브랜드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	54
<표 21> 브랜드별 볼 형태 특성 차이	55
<표 22> 브랜드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56
<표 23> 해체주의 특성별 브랜드 차이	57

<표 24> 해체주의 특성별 연도 차이	58
<표 25> 해체주의 특성별 눈썹 형태 차이	59
<표 26> 해체주의 특성별 눈 형태 차이	60
<표 27> 해체주의 특성별 입술 형태 차이	61
<표 28> 해체주의 특성별 볼 형태 차이	62
<표 29> 해체주의 특성별 얼굴 형태 차이	63
<표 30> 각 상관관계 분석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64

그림 목 차

<그림 1> 2015 S/S London Vivienne Westwood	18
<그림 2> 2009 F/W Paris Louis Vuitton	18
<그림 3> 2015 S/S London Vivienne Westwood	18
<그림 4> 2017 F/W London Vivienne Westwood	18
<그림 5> 2011 S/S New York Marc by Marc Jacobs	20
<그림 6> 2004 F/W Couture Christian Dior	20
<그림 7> 2010 S/S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
<그림 8> 2017 S/S Couture Jean Paul Gaultier	20
<그림 9> 2001 S/S Couture Christian Dior	22
<그림 10> 2003 F/W Couture Christian Lacroix	22
<그림 11> 2012 S/S Paris Alexander McQueen	22
<그림 12> 2018 S/S Paris Alexander McQueen	22
<그림 13> 2017 F/W Couture Jean Paul Gaultier	24
<그림 14> 2013 S/S Couture Chanel	24
<그림 15> 2001 S/S Paris John Galliano	24
<그림 16> 2002 F/W Paris John Galliano	24
<그림 17> 2010 S/S Couture Christian Dior	36
<그림 18> 2006 F/W Paris John Galliano	36
<그림 19> 2007 S/S Paris John Galliano	36
<그림 20> 2010 S/S Paris John Galliano	36
<그림 21> 2008 F/W Paris Christian Dior	37
<그림 22> 2016 F/W Couture Maison Marsela	37

I. 서론

현대 사회는 가치체계정보가 하나 되는 정보화 시대의 결과이다. 이로 인해 모든 예술 분야가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예술들이 불확정적이고 다원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며, 1960년대 이후 해체주의의 한 양상으로 기존의 것을 해체하려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여러 예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다.¹⁾

해체주의 이론은 기존의 억압적인 가치관과 전통적인 권위를 저항하고, 근원, 중심, 영원한 진리 등의 부재를 주장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해체주의의 메이크업은 시대사조로써 하나의 공유 개념으로 나타나고, 사회전반으로 침투 확산되어 가는 현상이라 보고 있으며,²⁾ 기존의 메이크업의 개념을 탈피하여 색채의 사용을 확대하고,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다.³⁾

해체주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선옥(1999)⁴⁾은 해체주의 메이크업을 조형요소별로 연구하였고, 이재열, 구자명(2005)⁵⁾은 해체주의를 응용해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한 연구, 방수진(2007)⁶⁾은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디자인적 요소를 자크테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에 관해 연구를 하였다.

1) 김성아, 공차숙 (2008),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불확정성 디자인, 한국인체예술학회지, 9(2), pp.33~46.

2) 방수진 (2008), 현대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요소에 관한 변화양상 연구: 오투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4(1), pp.97~113.

3) 이재열, 구자명 (2005),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한국의류학회지, 29(3), pp.414~424.

4) 노선옥 (1999),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1997~1999년도 패션쇼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5(1), pp.209~229.

5) 이재열, 구자명 (2005),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한국의류학회지, 29(3), pp.414~424.

6) 방수진 (2007), 자크테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와 같이 해체주의는 메이크업과 관련이 있으나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분석연구에 대한 논문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체주의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해체주의 특성을 도출하여 메이크업 요목에 따른 서로의 상관관계와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함으로써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을 혼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도출하고,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해체주의 특성과 눈썹, 눈, 입술, 볼, 얼굴로 메이크업 요목을 나누어 접목시켜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존 갈리아노가 활동한 브랜드별 패션쇼 메이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이미지 자료 수집은 패션 인터넷 사이트 Vogue, Livingly, Orient palms에서 발췌하였다. 본 연구자는 존 갈리아노의 브랜드를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디올, 메종 마르지엘라로 분류해 총 450장의 사진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여 실증 분석적으로 검증을 위해 수집한 이미지는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을 위해 메이크업 전문가 3인에 의해 이미지를 선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체주의

1) 해체주의의 개념

해체의 말은 통상적으로 붕괴, 파괴, 분해, 소멸, 풀어헤침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⁷⁾ 이는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사의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대한 학설들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에 적당한 우리말 번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말로 차용해 사용하면 ‘해체’라고 사용할 수 있다.⁸⁾

해체라는 용어를 독일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처음 사용하였고,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⁹⁾ 해체주의는 자크 데리다 사상으로 서구 형이상학의 해체작업이자 일종의 자기비판으로서 형이상학을 해체하고자 하였다.¹⁰⁾

자크 데리다는 ‘인문과학의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기호, 구조 그리고 유희’라는 논문을 1966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비평의 언어와 인문과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면서 해체주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였다.¹¹⁾

7) 네이버 색채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0959&cid=42641&categoryId=42641>, (검색일: 2017.09.01.)

8) 김경인 (2007),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현대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8(2), pp.732~740.

9) 허진영 (2014),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체의 방법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45.

10)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C%B2%B4%EC%A3%BC%EC%9D%98>, (검색일: 2017.09.01.)

11) 신나리 (2015),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연구: 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의미체계의 불확실성에서 시작되는데, 이에 따른 해체이론은 닫힌 체계의 저항이고, 동시에 다양성과 무질서, 불안정을 포용하여 열림을 추구하는 지적탐색이라고 말한다.¹²⁾

해체주의는 모든 이분법적인 이론을 해체시키고 허구임을 밝히려는 철학사상으로 서양철학의 기본인 형이상학 체계에 대한 총체적 비판을 통해 전통적으로 인정되고,¹³⁾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파괴하려는 개념을 넘어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 탈 구축해서구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반발하고 기존의 억압적인 권위에 저항하여 근원중심, 영원한 진리 등의 부재를 주장한다.¹⁴⁾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이 무의미하다고 기술하는 것은 이분법적 대립요소들이 각각 상호부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¹⁵⁾

해체주의는 문학, 예술 및 영화비평과 이론으로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분석이론, 교육학이론 및 사회학이론까지 확산되었고, 그 자체는 철학적 관문의 한계를 훨씬 능가하여 확장되었으며,¹⁶⁾ 예술분야 역시 현대의 해체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모습으로 해체, 분화되고, 재결합되면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주목 받고 있다.¹⁷⁾

12) 이미자 (2009),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0~2008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13) 함수정 (2016),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창작토텔패션 디자인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

14) 신나리 (2015), op.cit., p.5.

15) 고영은 (201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16) Hugh J. Silverman, 윤호병 역 (1998), 데리다와 해체주의: 철학과 사상, 서울: 현대미술사, p.10.

17) 공혜영 (2007),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연구: Sasha Waltz와 William Forsythe의 작품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9.

2) 해체주의의 특성

해체주의의 특성은 텍스트 내에 들어와 개별적으로 분별력 있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동적으로 혼재하면서 연쇄고리적인 작용이 이루어진다.¹⁸⁾ 해체주의의 특성에 대한 분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이루고 있다.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영재(2000)¹⁹⁾는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을 고찰하여, 해체주의의 특성을 현전과 타자성, 차연, 혼적, 산종, 보충, 상호텍스트성, 환유와 은유로 정리하였다.

방수진(2008)²⁰⁾은 해체주의적 메이크업의 실태분석차원에서 차원 간 및 차원 내 혼재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해체주의의 특성으로 산종, 차연, 보충, 글쓰기, 혼적,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 현상으로 정의를 구분하였고, 김지연, 김현주(2008)²¹⁾는 해체주의의 개념과 디자인 특성을 살펴본 뒤, 의상, 액세서리,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현상 4가지로 나누어 조형 예술의 특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 전체적인 패션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마정혜(2008)²²⁾는 해체주의적 특성을 혼적, 탈 중심성, 상호텍스트성, 차연, 산종으로 분류하여 전시공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18) 김유정 외 2인 (2015), 해체주의 건축, 패션, 메이크업의 작품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1), pp.111~120.

19) 이영재 (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9~32.

20) 방수진 (2008), 자크데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22.

21) 김지연, 김현주 (2008),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1(-), pp.41~54.

22) 마정혜 (2008), 자크데리다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적용한 박물관 사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3(1), pp.39~47.

또한 윤숙원(2010)²³⁾은 해체주의의 형성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정신과 개념을 이해하며 해체주의 복식디자인의 수용범위를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 해체주의를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 불확정성, 탈 현상으로 분류하였다.

김유정 외 2인(2015)²⁴⁾은 시대적 상황에 나타난 건축, 패션,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개념을 정리하고 해체주의적 조형적 특성이 헤어디자인에 어떻게 표현되어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체주의를 상호텍스트성, 차연, 탈 중심, 탈구조적, 의미의 불확정성으로 구분하였으며, 함수정(2016)²⁵⁾의 연구에서는 해체주의의 특성들을 창작 토털패션에 적용하고 해체주의의 특성을 차연, 탈 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중심을 응용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표 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논문을 바탕으로 해체주의의 특성을 글쓰기(Ecriture), 차연(Differance), 흔적(Trace), 산중(Dissemination), 대리보충(Supplement),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의미 불확정성(Intermening of meanings), 탈 현상(Breakaway from phenomenon)의 8가지로 분류하였다.

23) 윤숙원 (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p.5~15.

24) 김유정 외 2인 (2015), 해체주의 건축, 패션, 메이크업의 작품을 응용한 헤어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1) pp.111~120.

25) 함수정 (2016),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창작토털패션 디자인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pp.6~10.

<표 1>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자	해체주의 특성 분류
이영재(2000)	현전과 타자성, 차연, 흔적, 산중 보충, 상호텍스트성 환유와 은유
방수진(2008)	산중, 차연, 보충, 글쓰기, 흔적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탈 현상
마정혜(2008)	흔적, 탈 중심성, 상호텍스트성 차연, 산중
김지연, 김현주(2008)	차연,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현상
윤숙원(2010)	차연, 상호텍스트성 의미 불확정성, 탈 현상
김유정, 함수정, 진용미(2015)	상호텍스트성, 차연, 탈 중심 탈구조적, 의미 불확정성
함수정(2016)	차연, 탈 현상, 의미의 불확정성 상호텍스트성, 탈 중심

(1) 글쓰기

글쓰기는 문자, 문체, 서적의 의미와 쓰는 행위, 또는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프랑스어의 동사 ‘Ecriture(쓰다)’의 명사형으로 사용된다.²⁶⁾

자크 데리다가 해체의 대상으로 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존재의 의미를 현전으로 규정해온 서구의 형이상학으로, ‘음성’을 특징적인 주제로 택하였다. 그것은 소리가 의식에 있어서 직접적인 현저성이라는 의미로 로고스중심주의는 음성중심주의이다. 음성언어는 자기현전으로써 순수한 초월성을 띠는 것인 반면, 음성언어로부터 파생된 2차적인 것을 글쓰기라고 한다.²⁷⁾

26)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p.376.

27) 방수진 (2008), op.cit., p.18.

즉, 서구의 형이상학 속에는 음성언어/글쓰기라고 하는 계층관계가 형성되어왔으며,²⁸⁾ 자크 데리다는 형이상학의 상대적인 효과를 이용하고 그것의 개념을 포섭하여 붕괴시키며 형이상학의 개념의 한계를 나타내었다.²⁹⁾

(2) 차연

차연은 차이를 의미하며, 'Difference'라는 단어를 'Differance'로 'e'를 'a'로 바꿔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것은 발음이 동일하여 오직 글로 표기 될 때만 차이를 알 수 있으며, 현전성 강조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기호가 완전히 현존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단어이다.³⁰⁾

자크 데리다는 차연을 언어구조가 만들어낸 효과로써 무의미인 동시에 의미화라 하였고, 우리가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가장 역동적인 힘으로 무한대로 확대, 팽창되면서 유의미라고 착각하는 효과라 하였다.³¹⁾

차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다르다', '흠뿌리다', '연기하다'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르다, 흠뿌리다'는 공간성을 '연기하다'는 시간성의 차이를 가리키는 것으로,³²⁾ '공간적인 차이'와 '시간적인 연기'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³³⁾ 따라서, 차연은 수평과 수직의 대립이 파괴되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해체되어 그것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차이가 지연되는 작용을 말한다.³⁴⁾

28) 이용창 (2015), 해체주의 건축 관점에서 본 프랭크 게리 건축 특징을 적용한 뮤지엄 계획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29) 방수진 (2008), op.cit., p.18.

30) 신나리 (2015), op.cit., p.6.

31) 김혜정 (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43.

32) 김지연, 김현주 (2008), op.cit., pp.41~54.

33) 허진영 (2014), op.cit., p.51.

34) 권진영 (2009), 패션트렌드 컬러와 해체주의 패션 컬러의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3) 흔적

흔적은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현재 존재하지 않는 표시로써, 거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한 암시로 작용되며, 불어로 ‘La trace’를 자취, 흔적, 발자국, 자국 혹은 실마리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³⁵⁾

언어(Parole+Ecriture)의 기원은 현전이 남긴 흔적이 아니라 항상 기원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성립시키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야한다.³⁶⁾

흔적의 절대적 진리나 의미는 항상 유보되어 있고, 그 결과 실제로 제시되는 것의 실상은 허구이거나 은유일 뿐이며,³⁷⁾ 또한 일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글쓰기 뿐 만 아니라 그림과 음악의 영역에도 작용한다.³⁸⁾

(4) 산종

산종은 본래 종자가 출생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기저기 뿌려지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이는 다양한 의미의 가능성을 확장시켜 불확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의미로 태어나는 것으로, 종자를 원초적인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뿌리고 파종하는 해체의 기술이다.⁴⁰⁾ 이런 의미에서 산종은 다의성의 개념으로 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수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말한다.⁴¹⁾

언어는 모든 기표의 부재 속에 존재하는 상태로 무정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기능, 즉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통제되는 수준에서 엄격하고

35) 이영재 (2000), op.cit., pp.14~15.

36) 이용창 (2015), op.cit., pp.10~11.

37) 김은경 (2001), 해체주의적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플라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

38) 이광래 (1989), op.cit., p.382.

39) 마정혜 (2008), op.cit., pp.39~47.

40) 김성찬 (2016), 효제문자도의 그래픽디자인 요소로서 해체적 성향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9.

41) 김성아 (2007), Paris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주의: 2001~2007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합당한 모든 의미를 접목하는 기능을 나타낸다. 따라서 산중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의미의 상태이다.⁴²⁾

자크 데리다는 중심이 존재하며 유일하고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의 속성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Pharmakon(독/약)과 같이 두 개의 대립하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 것이 판단 또는 결정이 불가능해지는 장소에 놓이게 되면, 상반되는 대립들이 결정될 수 없음을 폭로하였다.⁴³⁾

(5) 대리보충

보충은 텍스트 내에서 꾸준히 향하려는 발로이며 등가를 이루는 완성으로 자크 데리다의 보충개념을 보면,⁴⁴⁾ 역할을 대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체에 부가된 일종의 ‘잉여’이고 ‘과잉’이며 ‘충실하게 하는 또 하나의 충실함’이다. 또한, 보충은 ‘대행한다(Suppleer)’로 역할을 대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⁴⁵⁾ 즉, 대행한다는 이미 보충되어야 할 충실함이 결여되었다는 것이고, 어떤 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⁴⁶⁾

대리보충은 ‘말’과 대비되는 ‘문자’, ‘남성’과 대비되는 ‘여성’, ‘자연’과 대비되는 ‘문명’이 결국 구조를 지탱해주는 핵심임을 말하며,⁴⁷⁾ 자크 데리다의 텍스트가 지니고 있는 원리를 암시하고, 자크 데리다가 이제까지 쓴 모든 텍스트에 대한 잉여임과 동시에 결여인 보충의 역할을 연출한 것이다. 또한 그러한 글쓰기가 바로 그의 텍스트가 된 것이다.⁴⁸⁾

42) 공혜영 (2007), op.cit., p.34.

43) 조민희 (2008),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와 범여성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5~6.

44) 허진영 (2014), op.cit., p.52.

45) 이광래 (1989), op.cit., p.383.

46) 이용창 (2015), op.cit., p.13.

47)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790&cid=41799&categoryId=41800>, (검색일:2017.09.08.)

48) 이광래 (1989), op.cit., p.384.

(6) 상호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은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거나, 저자가 선행 텍스트에서 차용 또는 변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⁴⁹⁾

텍스트는 단순히 글 또는 한권의 서류에서 본문을 가리키는 말로써 주로 언어학자, 문학, 비평가등 자신의 연구 대상인 글을 자칭하는데 사용되어왔다. 또한, 상호텍스트성은 주어진 텍스트가 이전에 존재해 있는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⁵⁰⁾ 텍스트의 자율성을 거부하고 언술행위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중첩된다는 개념으로, 세계에 대한 모든 것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변화하며, 상호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함을 말한다.⁵¹⁾

상호텍스트는 주어진 한 텍스트가 이전에 존재해있는 다른 텍스트들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해오는 것으로 서로 교차하여 확장될 수 있는 조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 불가능함을 의미한다.⁵²⁾

텍스트가 자율성을 거부하며 각각의 언술행위의 형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이론을 따르는 것으로,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한다.⁵³⁾

49)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8%B8%ED%85%8D%EC%8A%A4%ED%8A%B8%EC%84%B1>, (검색일:2017.09.08.)

50) 김경인 (2007), op.cit., pp.732~740.

51) 최은희 (1998), 해체주의 건축의 시공간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렘 콜하스와 굽 힘멜브라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52) 김지연, 김현주 (2008), op.cit., pp.41~54.

53) 윤숙원 (2010), op.cit., p.13.

(7) 의미 불확정성

의미 불확정성의 의미는 환경과 요구에 따라 불확정적인 모습이 지속적으로 다르게 해석되어 나타난다. 불확정성은 불확실함이 아닌 비결정의 모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⁵⁴⁾ 결국에는 해체주의의 특성으로 의미들을 상종시키며, 비결정성이나 미완전성의 한계로 인해 의미의 모호성을 인정하는 것이다.⁵⁵⁾

자크 데리다는 의미 불확정성을 주관에서 비롯된 허구의 구조물로 절대적 의미나 진리는 사실상 부재하며, 체계의 불확정성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체계는 무한히 확장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개방성을 띄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⁶⁾

(8) 탈 현상

탈 현상은 존재와 부재, 실제와 허구, 구상과 추상 등 이분법적 체계를 파괴, 이탈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성의 절대성이나 기존의 수학적, 기하학적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⁵⁷⁾ 이는 텍스트의 통일된 전체성을 개념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부정하는 것을 말한다.⁵⁸⁾

탈 현상은 탈 구성(Dis-composition)과 탈 중심(De-centralize)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54) 김성찬 (2016), op.cit., p.31.

55) 김현미 (2000),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1990년대 후반 캐주얼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56) 김주현 외 2인 (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8.

57) 고영은 (2012), op.cit., p.12.

58) 김성아, 김희숙 (2008), Paris 컬렉션의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탈현상에 관한 연구 : 2001-2007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9(1), pp.36~52.

탈 구성은 해체의 개념으로 텍스트를 파괴하고 분석하여 특정한 구조적 범위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내는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며, 관계없는 것들의 상호작용이 무작위로 이루어지게 되어 전체의 통일성을 해체시켜 기존의 구성방식을 파괴하는 것이다.⁵⁹⁾

탈 중심은 제 3의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항대립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성, 계급, 인종, 문화, 미에 관한 개념들이 형이상학적 관점의 중앙을 벗어나 주변 개념과 섞이는 것을 의미한다.⁶⁰⁾

59) 신나리 (2014), op.cit., pp.9~10.

60) 김혜연 (2013),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2. 패션쇼 메이크업

1) 패션쇼 메이크업의 개념

메이크업(Make-up)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게 해주고 단점을 보완, 수정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로, ‘만들다’, ‘제작하다’, ‘보완하다’라는 뜻을 말한다.⁶¹⁾

16세기 셰익스피어의 희극 속에서 ‘페인팅(Painting)’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차드 크라슈(Richard Crashou)는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를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며 메이크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⁶²⁾

메이크업은 현대에 이르러 주제에 따라 다양한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인간의 신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미적 본능과 끊임없는 욕망에서 일어나는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 중 한 방법이다.⁶³⁾

이렇듯 메이크업은 외모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스스로 어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미적본능의 표현 방법으로 종교적인 욕구충족과 신체보호, 사회적 지위 등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⁶⁴⁾

61) 네이버 학문명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4494&cid=44415&categoryId=44415>, (검색일:2017.09.11.)

62) 박은경 (2006),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63) 이경은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7.

64) 오정희 (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90년대 이후 패션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

메이크업은 뷰티메이크업, 아트 메이크업, 캐릭터 메이크업, 패션쇼 메이크업, 특수 분장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베이직 메이크업, 스페셜 메이크업, 하이테크닉 메이크업, 특수 분장으로도 분류한다. 이와 같이 각자의 사고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해당 용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⁶⁵⁾

그 중 패션쇼 메이크업은 기존의 예술 관념이나 보편적인 아름다움에서 벗어나 혁신적 예술을 추구하는 다채롭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디자이너의 의도나 패션의 컨셉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 질 수 있다.⁶⁶⁾

패션쇼는 복장 및 그 밖의 제품을 살아있는 모델에게 착용시켜 무대 위에서 관객에게 선보이는 종합예술로, 패션디자이너가 새로운 시즌에 앞서서 패션의 경향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⁶⁷⁾ 이는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 시킨 개념이며,⁶⁸⁾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그리고 잡화 등 토탈 패션의 요소로써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로 메이크업에 패션이나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⁶⁹⁾

이와 같이 패션쇼 메이크업은 인위적 성향을 갖는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으며, 관객중심으로 조명을 동반한 무대 위에서 콘셉트에 맞추어 얼굴의 조형특징을 과장시키는 작업이다.⁷⁰⁾

65) 이경은 (2007), op.cit., p.8.

66) 윤성희 (2008), 현대 패션쇼 메이크업 디자인에 나타난 미래주의 트렌드에 관한 연구: 2003~2007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4.

67) 김지연 (2009),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2(-), pp.79~92.

68) 강은주 (2008),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 연구: 2003년 이후 존 갈리아노 패션쇼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8(-), pp.121~130.

69) 박은경 (2006), op.cit., pp.23~24.

70) 박정신 (2013), 패션쇼 메이크업의 아방가르드 이미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1(1), pp.185~192.

2) 패션쇼 메이크업의 요소

(1) 형태

형태는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추구하는 사용목적과 일치할 때 비로소 독립된 형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용성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인간의 얼굴 표면 위에 행해지는 조형예술로 점, 선, 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⁷¹⁾ 점은 크기와 배열에 따라 표현이 다양하게 나타내며, 얼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점을 사용하면 새로운 패턴이 되며 구성력 있고 실험적인 조형감을 표현할 수 있다.⁷²⁾

메이크업에서 점을 표현할 때에는 점을 포인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기하학적 형태나 자유자재로 임의의 형태를 취하면서 표현된다. 이렇듯 점은 크기에 따른 아주 미세한 변화에 의해서 의도되고 있는 다양성과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다.⁷³⁾(그림 1).

선은 점 다음으로 단순한 형식의 요소로 넓이와 깊이는 없고 길이만 있는 것으로 점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다.⁷⁴⁾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는 조형예술의 성향이 강해 정형적 스타일을 파괴하고 얼굴 윤곽을 크게 고려하지 않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을 강조하고 이목구비의 형태, 좌우대칭 구조를 무시한 탈 형식적인 시도들이 나타났으며,⁷⁵⁾ 얼굴형상을 근간으로 하여 얼굴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정형화된

71) 정승희 (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9.

72) 정여리 (2016),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패션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2011년부터 2016년 패션 컬렉션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2.

73) 방기정 (2011),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7.

74) 박정신 (2013), op.cit., pp.185~192.

75) 이승주 (2005),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5.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기본골격이나 눈, 코, 입술 등의 형을 무시하고 얼굴 전체를 하나의 표현의 장인 새로운 공간개념으로 창출하여 절대적 질서를 본래의 의미로부터 무시하고 이탈시키는 표현중심의 메이크업이 나타났다.⁷⁶⁾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메이크업디자인에서도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으며, 자연물에서 인공물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조형언어를 삼고 있는 특유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⁷⁷⁾

<그림 2>와 같이 얼굴형상을 근간으로 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메이크업이 대부분이지만, 정형화된 표현에서 벗어나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의 형태를 무시한 탈 형식적인 시도들이 기하학적 표현방법이 강한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⁷⁸⁾(그림 3).

면은 선의 균집과 점의 균집으로 조형되며 아이섀도우(Eye-Shadow)나, 블러셔(Blusher), 립(Lip)의 표현 등이 면의 구성력을 가지고, 얼굴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⁷⁹⁾ 또한 <그림 4>와 같이 얼굴 전체를 덮는 표현방법으로 삼각형, 사각형 등의 기하학적인 문양으로도 사용된다.⁸⁰⁾

따라서, 점, 선, 면은 서로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76) 이상봉 (2006),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표현된 메이크업 연구: 2000년 봄/여름~2006년 가을/겨울, 한국인체예술학회지, 7(3), pp.137~156.

77) 정승희 (2010), op.cit., p.39.

78) 이상봉 (2006), op.cit., pp.137~156.

79) 장연아 (2016), 현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디자인 조형성 연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3~14.

80) 송연재 (2017), 컬렉션 메이크업의 형태 분석 및 키치의 미적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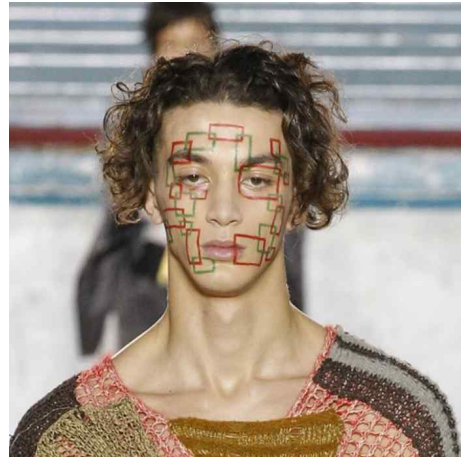
<그림 1> 2015 S/S London Vivienne Westwood
 (http://www.livingly.com/runway/Vivienne+Westwood/London+Fashion+Week+Spring+2015)
 검색일: 2017.09.13.



<그림 2> 2009 F/W Paris Louis Vuitton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09-ready-to-wear/louis-vuitton#collection)
 검색일: 2017.09.15.



<그림 3> 2015 S/S London Vivienne Westwood
 (http://www.livingly.com/runway/Vivienne+Westwood/London+Fashion+Week+Spring+2015)
 검색일: 2017.09.14.



<그림 4> 2017 F/W London Vivienne Westwood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menswear/vivienne-westwood)
 검색일: 2017.09.14.

(2) 색채

색상은 그 시대의 특징적인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조화되며 발전되어왔으며, 패션과 메이크업과의 조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⁸¹⁾

일반적으로 메이크업에서의 색채는 의상과 모발 색, 눈동자 색과 피부색에 어울리도록 색상, 명도, 채도를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며, 회화적 특성을 갖는 색채예술로 색채의 응용과 적용을 하고 있다.⁸²⁾

색은 메이크업으로써 인간에게 표현되어 더욱 큰 효과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색 자체가 갖는 성질로서도 느낌을 갖고 있다.⁸³⁾

색채는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적절한 효과를 주고,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시각적 디자인의 요소이며, 개인의 기호, 심리상태를 표현하여 이미지를 나타내고 전달한다.⁸⁴⁾ <그림 5>와 같이 일반적인 뷰티 메이크업의 색채와 달리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색채는 자유로운 컬러 선택과 정형적인 메이크업 컬러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 독특하고 실험적인 주제와 부합되는 메이크업을 나타낸다⁸⁵⁾(그림 6).

패션쇼 메이크업에서의 색채는 기발한 색채사용으로 새로운 시각효과를 보여준다. 이것은 과도하게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거나, 반대로 축소시켜 생략하거나 극도로 색채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등, 색의 적절한 조화와 대비, 강조에 따른 배색이 나타난다⁸⁶⁾(그림 7, 8).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색채는 패션을 잘 보이도록 나타내기도 하며, 독특한 색채를 사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 시각효과를 보여주는데도 사용된다.

81) 허연정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동양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82) 박정신 (2013), op.cit., pp.185~192.

83) 정은희 (2003), 현대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1.

84) 방기정 (2011), op.cit., p.29.

85) 이승주 (2005), op.cit.,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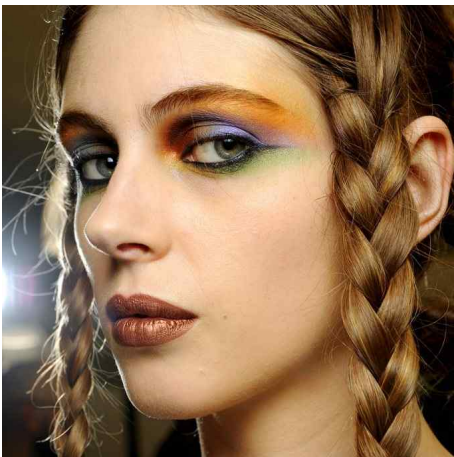
86) 방기정 (2011), op.cit., p.30.



<그림 5> 2011 S/S New York
Marc by Marc Jacobs
(<http://www.livingly.com/runway/Marc+By+Marc+Jacobs/New+York+Fashion+Week+Spring+2011/0pa8NJq6YpJ>)
검색일: 2017.09.17.



<그림 6> 2004 F/W Couture
Christian Dior
(<http://www.livingly.com/runway/Christian+Dior/Couture+Fall+2004/6aZleDGnRFu>)
검색일: 2017.09.17.



<그림 7> 2010 S/S Couture
Jean Paul Gaultier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0-couture/jean-paul-gaultier#collection>)
검색일: 2017.09.18.



<그림 8> 2017 S/S Couture
Jean Paul Gaultier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7-couture/jean-paul-gaultier>)
검색일: 2017.09.18.

(3) 질감

질감은 영어로 텍스처(Texture), 독일어로 마티에르(Matier), 미술에서는 질료라고 한다. 이것은 형태, 색채와 더불어 디자인의 필수 요소로서, 물체의 조성 성질을 말하며, 디자인에 사용된 재료의 표면 성격이다.⁸⁷⁾

일반적으로 메이크업디자인에 있어서 질감은 피부의 결을 고르게 보이도록 하는 것으로, 질감 표현은 매트(Mat), 글로시(Glossy), 펄(Pearl), 글리터(Glitter) 등이 있는데, <그림 9, 10>과 같이 광택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피부 전체에 바른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양에 의해 달라진다.⁸⁸⁾

또한,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는 재료에 제한이 없어 화장품 이외에 더 폭넓은 재료 사용으로 오브제라 불리는 여러 소재들을 통해 일반적인 뷰티메이크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질감을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시각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⁸⁹⁾(그림 11, 12).

이것은 곧 시각적 질감으로 색채의 표현 방법과 고유한 색채 자체에서 느낄 수도 있으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새털과 같은 부드러운 질감으로 느끼기도 하고 요철의 질감으로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⁹⁰⁾

또한, 질감은 손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여러 소재들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87) 최희정 (2012), 오브제를 응용한 바디아트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88) 정승희 (2010), op.cit., p.46.

89) 김초롱 (2017),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 및 표현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8.

90) 임정미 (2006), 바디아트의 질감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그림 9> 2001 S/S Couture
Christian Dior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1-couture/christian-dior#collection>)

검색일: 2017.09.17.



<그림 10> 2003 F/W Couture
Christian Lacroix

(<http://www.livingly.com/runway/Christian+Lacroix/Couture+Fall+2003/tj3HWb5C7cr>)

검색일: 2017.09.25.



<그림 11> 2012 S/S Paris
Alexander McQueen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2-ready-to-wear/alexander-mcqueen#collection>)

검색일: 2017.09.25.



<그림 12> 2008 S/S Paris
Alexander McQueen

(<http://www.livingly.com/runway/Alexander+McQueen/Paris+Fashion+Week+Spring+2008/AR9xF5e71eR>)

검색일: 2017.09.26.

(4) 오브제

오브제는 체험하고, 보는 사람의 정신작용이나 잠재의식을 강하게 일으키는 특별한 물체를 의미하며, 라틴어의 Objectum에서 기원된 말로, 앞에 던져진 대상이라는 뜻이고, 사물 또는 객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⁹¹⁾ 이것은 예술의 기능, 형식, 재료를 확대하기 위해 외부의 세계를 정복하는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시대와 상관없이 메이크업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오브제를 꾸준히 사용하고, 새롭게 변화된 오브제가 현대적 기법을 접목시켜 종이류, 패브릭, 보석류, 인조 속눈썹, 금속류, 비닐, 깃털 종류 등이 사용되고 있다.⁹²⁾(그림 13, 14).

최근 패션쇼 메이크업에서는 디테일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일반적인 메이크업과는 달리 조형적 요소의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⁹³⁾ 메이크업과 의상의 통일성과 조화로움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디테일적인 요소가 신체에도 적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⁹⁴⁾ 특히,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서는 <그림 15, 16>과 같이 끈을 붙이거나, 깃털을 꽃 모양으로 형상화하는 메이크업에 있어서 디테일적인 요소는 다른 조형적인 요소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과감하고 실험적인 요소를 강하게 띄고 있다.⁹⁵⁾

따라서,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디테일은 다양한 소품으로 밋밋할 수 있는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어 패션과 어우러지면서 화려해 보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91) 방수진 (2009),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II: Christian Dior 패션쇼를 중심으로, 한국미용예술학회지, 3(1), pp.49~58.

92) 정승희 (2010), op.cit., p.47.

93) 이정아 (2002),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7.

94) 이승주 (2005), op.cit., p.58.

95) 이정아, 홍정민 (2003),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6(3), pp.27~39.



<그림 13> 2017 F/W Couture
Jean Paul Gaultier
(<http://ko.orientpalms.com/Jean-Paul-Gaultier-6840>)
검색일: 2017.09.26.



<그림 14> 2013 S/S Couture Chanel
(<http://ko.orientpalms.com/chanel-3339>)
검색일: 2017.09.29.



<그림 15> 2001 S/S Paris
John Galliano
(<http://www.livingly.com/runway/John+Galliano/Paris+Fashion+Week+Spring+2001>)
검색일: 2017.10.02.



<그림 16> 2002 F/W Paris
John Galliano
(<http://www.livingly.com/runway/John+Galliano/Paris+Fashion+Week+Fall+2002/647pHj5xg7K>)
검색일: 2017.10.02.

3. 존 갈리아노

1) 존 갈리아노의 생애 및 작품세계

존 갈리아노(Juan Carlos Antonio Galliano)는 1960년 스페인의 항구도시 지브롤터에서 태어났으며, 배관공인 아버지를 따라 6살 때 영국의 런던으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⁹⁶⁾ 아버지는 지브롤터인이었고, 어머니는 스페인인이었으며, 집시였기 때문에 존 갈리아노는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⁹⁷⁾

특출한 예술적 재능을 보인 것은 런던에서 자라며 역사적 전통에 바탕을 둔 영국 패션을 익히면서부터이며,⁹⁸⁾ 디자인과 섬유 프린트 공부를 시티 앤 이스트 런던 칼리지(City and East London College)에서 하였고, 이어 본격적으로 패션 디자인 수업을 쌓은 것은 세인트 마틴스(Saint Martins)예술학교에서였다.⁹⁹⁾

존 갈리아노가 재학시절 동안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국립극장 의상 일은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였고, 여성과 옷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작품들을 종래의 컬렉션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발표하였고, 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델들에게 연기를 요구하게 되었다.¹⁰⁰⁾

1984년 6월 세인트 마틴스 졸업전시회에서는 졸업 작품으로 테일러드를 본인이 느낀 로맨티시즘과 앤드로지너스풍으로 제작하였는데 이 중, 24점이

96) 네이버 캐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734&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09.21.)

97) 이귀영 (2008), 존 갈리아노의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

98) 박민경 (2008), 존 갈리아노의 패션에 나타난 공간적 퓨전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99) 김현진 (2010), 금속을 활용한 헤어아트 표현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7.

100) 이귀영 (2008), op.cit., pp.31~32.

브라운즈 백화점에 디스플레이용으로 전시되어 마스크과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패션계로 부상하게 되었으며,¹⁰¹⁾ 이에 1987년과 1994년, 1995년 세 번에 걸쳐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로 선정되었다.¹⁰²⁾

존 갈리아노는 1984년, 성공적인 졸업컬렉션 이후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런칭하였으며, 첫 컬렉션에서 동양의 소재와 스타일링을 서양의 테일러링과 결합하고, 역사적인 영향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조합한 작품들을 발표함으로써 패션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¹⁰³⁾

활동하던 당시에는 영국 패션산업이 산학과 정부가 힘을 합해 노력하던 환경 아래에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존 갈리아노는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자신의 브랜드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기업가와 자본가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았지만, 어려움은 끝나지 않았다.¹⁰⁴⁾

이후 존 갈리아노가 1990년 파리로 활동무대를 옮긴 뒤 발표한 작품들은 런던에서의 작품들에 비해 색상, 소재, 실루엣이 안정적이면서도 더 여성적으로 변했고, 새로운 창의적인 성격을 나타내었으며,¹⁰⁵⁾ 크로스 오버 스타일과 여러 가지 실험적인 재단과 스케일이 영국 런던 컬렉션의 아방가르드 했던 작품들과 비슷한 해체적인 경향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우아하면서 웨어러블한 상업성이 나타나게 되었다.¹⁰⁶⁾

1995년 말에는, LVMH(Louis Vuitton & Moët Hennessy)의 수장에게 스카우트되어 지방시(Givenchy) 수석 디자이너로 발탁되었으며, 지방시의 오프뚜르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에 힘입어 1997년 같은 그룹 소

101) 김명섭 (1998), 존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102) 장미연 (2016), 롤랑 바르트 의미작용에 따른 존 갈리아노 컬렉션 메이크업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103) 이귀영, 조규화 (2009),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3(2), pp.50~65.

104) 이귀영 (2008), op.cit., p.35.

105) 이귀영, 조규화 (2009), op.cit., pp.50~65.

106) 이수현 (2010), 로맨틱 아방가르드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1.

유의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¹⁰⁷⁾

디올 입성은 패션 중심지 파리에서 영국인의 이름으로 이룩한 혁명과도 같은 일이고, 또한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와 디올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오프꾸뛰르와 기성복을 넘나들며 해마다 12번이 넘는 컬렉션을 개최하였으며,¹⁰⁸⁾ 디올의 수석디자이너에 오른 것은 자신의 라인에서 선보인 여성적인 특성의 작품들이 디올에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이너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¹⁰⁹⁾ 번덕스럽고 수명이 짧은 패션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역사 속의 서구 서양복식 스타일을 자신만의 낭만으로 풀어내는 디자이너로 평가되었고, 존 갈리아노의 영감과 발상은 면밀한 연구와 기교에 들인 숏한 시간의 결과들 덕분이다.¹¹⁰⁾

그러나 존 갈리아노는 2011년 2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다. 더불어 ‘히틀러를 사랑한다’고 말한 이전의 동영상도 함께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이에 디올은 즉각 해고절차에 돌입하여 2011년 3월에 개최된 2011 F/W 디올의 기성복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해임되었다.¹¹¹⁾

이후 존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올을 떠난지 4년만인 2015년 현재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Maison Margiela)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일상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사물을 디자인에 접목하여 정교한 재단, 비율이 잘 맞아떨어지는 실루엣 등으로 첫 번째 오프꾸뛰르 컬렉션을 발표하며 복귀하였다.¹¹²⁾

107) 성광숙 (2009), 존 갈리아노의 콜렉션에 나타난 헤드웨어의 디자인 특성, 패션비즈니스, 13(4), pp.163~177.

108) 네이버 캐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734&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10.27.)

109) 김선영 (2013), John Galliano 작품에 나타난 라제리룩의 특성,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2), pp.147~159.

110) 정정희 (2009), 패션하우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Dior Balenciag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0.

111) 네이버 캐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734&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10.27.)

112) 장미연 (2016), op.cit., p.17.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를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디올, 메종 마르지엘라 브랜드로 구분하고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존 갈리아노 패션쇼(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디올, 메종 마르지엘라)에 나타난 연도별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2. 존 갈리아노 패션쇼 브랜드별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을 알아본다.

연구문제 3. 해체주의 특성별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의 요목(눈썹, 눈, 입술, 볼, 얼굴)을 나누어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4. 요목들에 관한 상관관계와 기간별 차이분석을 실시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디올, 메종 마르지엘라의 브랜드 메이크업에서 요목을 눈썹, 눈, 입술, 볼, 얼굴로 구분하고, 해체주의 특성을 혼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의 6가지로 나누었다.

사진 자료는 <표 2>와 같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의 각 브랜드 별로 총 450장의 사진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패션쇼 관련 홈페이지 Vogue¹¹³⁾, Livingly¹¹⁴⁾ Orient palms¹¹⁵⁾를 참고하여 총 450개의 사진을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존 갈리아노가 본인의 고유 브랜드로 활약했던 사진 150장,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디오르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있을 때 패션쇼 사진 150장,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메종 브랜드의 디자이너로 있을 때 패션쇼 사진 150장의 사진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13) John Galliano: 2005~2017 S/S Ready to wear, 2005~2017 F/W Ready to wear, Christian Dior: 2005~2011 S/S Ready to wear, 2005~2011 F/W Ready to wear, 2005~2011 S/S Couture, 2005~2011 F/W Couture, Maison Margiela: 2015~2017 S/S Ready to wear, 2015~2017 F/W Ready to wear, 2015~2017 S/S Couture, 2015~2017 F/W Couture, <https://www.vogue.com/fashion-shows/designer/john-galliano>, (검색일:2017.08.20.~2017.10.27.)

114) John Galliano: 2005~2017 S/S Ready to wear, 2005~2017 F/W Ready to wear, Christian Dior: 2005~2011 S/S Ready to wear, 2005~2011 F/W Ready to wear, 2005~2011 S/S Couture, 2005~2011 F/W Couture, Maison Margiela: 2015~2017 S/S Ready to wear, 2015~2017 F/W Ready to wear, 2015~2017 S/S Couture, 2015~2017 F/W couture, <http://www.livingly.com/designer/John+Galliano>, (검색일:2017.08.20.~2017.10.27.)

115) John Galliano: 2008~2011 S/S Ready to wear, 2008~2011 F/W Ready to wear, Christian Dior: 2008~2011 S/S Ready to Wear, 2008~2011 F/W Ready to wear, 2007~2011 S/S Couture, 2007~2011 F/W Couture, Maison Margiela: 2016~2017 S/S Ready to wear, 2015~2017 F/W Ready to wear, 2015~2017 S/S Couture, 2015~2017 F/W Couture, <http://ko.orientpalms.com/john-galliano>, (검색일:2017.08.20.~2017.10.27.)

<표 2> 연도별 연구대상

(수량 %)

년도	패션쇼명	연구대상의 빈도	%
2005	John Galliano Spring 2005 Ready to wear	2	0.44
	John Galliano Fall 2005 Ready to wear	4	0.89
	Christian Dior Spring 2005 Couture	4	0.89
	Christian Dior spring 2005 Ready to wear	5	1.11
	Christian Dior Fall 2005 Ready to wear	4	0.89
	Christian Dior Fall 2005 Couture	10	2.22
	소계	29	6.44
2006	John Galliano Spring 2006 Ready to wear	13	2.89
	John Galliano Fall 2006 Ready to wear	4	0.89
	Christian Dior Spring 2006 Couture	5	1.11
	Christian Dior Spring 2006 Ready to wear	2	0.44
	Christian Dior Fall 2006 Couture	10	2.22
	Christian Dior Fall 2006 Ready to wear	2	0.44
	소계	36	8.00
2007	John Galliano Spring 2007 Ready to wear	5	1.11
	John Galliano Fall 2007 Ready to wear	11	2.44
	Christian Dior Spring 2007 Couture	8	1.78
	Christian Dior Fall 2007 Couture	17	3.78
	Christian Dior Fall 2007 Ready to wear	5	1.11
	소계	46	10.22
2008	John Galliano Spring 2008 Ready to wear	6	1.33
	John Galliano Fall 2008 Ready to wear	8	1.78
	Christian Dior Spring 2008 Couture	12	2.67
	Christian Dior Fall 2008 Couture	1	0.22
	Christian Dior Spring 2008 Ready to wear	7	1.56
	Christian Dior Fall 2008 Ready to wear	6	1.33
	소계	40	8.89
2009	John Galliano Spring 2009 Ready to wear	7	1.56
	John Galliano Fall 2009 Ready to wear	8	1.78

	Christian Dior Spring 2009 Ready to wear	1	0.22
	Christian Dior Fall 2009 Ready to wear	6	1.33
	Christian Dior Spring 2009 Couture	4	0.89
	Christian Dior Fall 2009 Couture	3	0.67
	소계	29	6.44
2010	John Galliano Spring 2010 Ready to wear	4	0.89
	John Galliano Fall 2010 Ready to wear	11	2.44
	Christian Dior Spring 2010 Ready to wear	2	0.44
	Christian Dior Fall 2010 Ready to wear	5	1.11
	Christian Dior Spring 2010 Couture	4	0.89
	Christian Dior Fall 2010 Couture	5	1.11
	소계	31	6.89
2011	John Galliano Spring 2011 Ready to wear	14	3.11
	Christian Dior Spring 2011 Ready to wear	3	0.67
	Christian Dior Fall 2011 Ready to wear	12	2.67
	Christian Dior Spring 2011 Couture	7	1.56
	소계	36	8.00
2012	John Galliano Spring 2012 Ready to wear	2	0.44
	John Galliano Fall 2012 Ready to wear	8	1.78
	소계	10	2.22
2013	John Galliano Spring 2013 Ready to wear	10	2.22
	John Galliano Fall 2013 Ready to wear	2	0.44
	소계	12	2.67
2014	John Galliano Spring 2014 Ready to wear	3	0.67
	John Galliano Fall 2014 Ready to wear	4	0.89
	소계	7	1.56
2015	John Galliano Spring 2015 Ready to wear	3	0.67
	John Galliano Fall 2015 Ready to wear	4	0.89
	Maison Marsela Spring 2015 Couture	12	2.67
	Maison Marsela Fall 2015 Ready to wear	16	3.56
	Maison Marsela Fall 2015 Couture	19	4.22
	소계	54	12.00
2016	John Galliano Spring 2016 Ready to wear	4	0.89

	John Galliano Fall 2016 Ready to wear	2	0.44
	Maison Marsela Spring 2016 Couture	2	0.44
	Maison Marsela Spring 2016 Ready to wear	14	3.11
	Maison Marsela Fall 2016 Couture	19	4.22
	Maison Marsela Fall 2016 Ready to wear	9	2.00
	소계	50	11.11
2017	John Galliano Spring 2017 Ready to waer	4	0.89
	John Galliano Fall 2017 Ready to wear	7	1.56
	Maison Marsela Spring 2017 Ready to wear	17	3.78
	Maison Marsela Spring 2017 Couture	6	1.33
	Maison Marsela Fall 2017 Ready to wear	19	4.22
	Maison Marsela Fall 2017 Couture	17	3.78
	소계	70	15.56
총계		450	100.00

3. 해체주의 특성종류 및 메이크업 형태분석

본 연구는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둘째, 각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산출하였다.

셋째,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고,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요목 및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논문 방수진(2008)¹¹⁶, 강근영(2011)¹¹⁷, 윤숙원(2010)¹¹⁸, 한보현(2009)¹¹⁹의 분석요목을 참고하여, <표 3>와 같이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16) 방수진 (2008), op.cit., pp.81~149.

117) 강근영 (2011), 여성의 메이크업과 얼굴의 부분별 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1~108.

118) 윤숙원 (2010), op.cit., pp.5~15.

119) 한보현 (2009),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얼굴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6~38.

<표 3>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형태 분석요목

분석요목	분석단위	분석내용
해체주의	6	흔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
눈썹	4	라인확장형태, 위치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무 형태
눈	5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 문양, 무 형태
입술	4	모양변형, 외각라인 왜곡 이색색상 사용 형태, 정상형태
볼	4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무 형태, 확장형태
얼굴	3	패치형태, 구상적 문양, 추상적 문양
합계		26

분석의 내용으로 해체주의의 특성은 흔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실성, 탈현상으로 나누었다.

전문가 집단이 보았을 때, 흔적은 시대의 흔적을 표현한 것이라 말하며(그림 17), 차연은 재료를 흘뿌리듯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그림 18). 또한, 산중은 채워지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를 뜻하고(그림 19), 대리보충은 잉여되게 표현하거나, 과잉되게 표현한 것이라 정의한다(그림 20). 의미 불확실성은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것을 말한다(그림 21). 탈현상은 파괴되거나 해체되어 무섭게 표현된 것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그림 22).

눈썹 형태는 라인확장형태, 위치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무형태로 선정하였다. 라인확장형태는 기존의 눈썹 형태에서 확장한 형태를 의미하고, 위치이탈형태는 기존의 눈썹위치에서 벗어난 형태를 말하였고, 다양한 색상형

태는 많이 사용하는 검정, 갈색이 아닌 새로운 색상이나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표현한 것을 뜻한다. 또한 아무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무형태로 분류하였다. 눈 형태는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 문양, 무형태로 선정하였다. 선과 면의 형태는 눈 메이크업을 선이나 면으로 표현된 형태를 말하며, 아이새도우를 넓게 채우듯 표현한 형태를 새도우 확장형태,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이용하여 변형한 것을 오브제의 변형, 기이한 형태가 나타난 메이크업을 추상적 문양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무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무형태로 분류하였다.

입술 형태는 모양변형, 외각라인 왜곡, 이색색상 사용형태, 정상형태로 살펴보았다. 모양변형은 기존 입술 형태를 벗어난 형태이고, 입술라인보다 크게 그리거나 입술의 외곽만 그린 것은 외각라인 왜곡, 두 가지 색상을 입술에 사용한 것을 이색색상 사용형태로 정하였고, 입술에 메이크업이 보이지 않거나, 기존 입술 형태를 정상형태로 분류하였다.

볼 형태에서는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무형태, 확장형태로 분류하였다. 기존 볼 메이크업은 타원형태로 포함하였으며, 두 가지 색상을 사용한 형태를 이색색상 사용형태로 나누었다. 또한 볼에 메이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형태로 하였고, 과장되게 얼굴 전체 흐트러진 모양을 확장형태라 분석하였다.

얼굴의 형태는 패치형태, 구상적 문양, 추상적 문양으로 살펴보았다.

패치형태는 독특한 소재로 입체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표현하였다.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상적 문양으로 포함하였고, 이와 반대로 기이한 형태로 나타난 추상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추상적 문양으로 정하였으며, 분류된 요목별 사진은 <표 4>와 같다.



<그림 17> 2010 S/S Couture

Christian Dior

([http://www.livingly.com/runway/Christian+](http://www.livingly.com/runway/Christian+Dior/Couture+Spring+2010)

[Dior/Couture+Spring+2010](http://www.livingly.com/runway/Christian+Dior/Couture+Spring+2010))

검색일:2017.10.04.



<그림 18> 2006 F/W Paris

John Galliano

([http://www.livingly.com/runway/John+Galli](http://www.livingly.com/runway/John+Galliano/Paris+Fashion+Week+Fall+2006)

[ano/Paris+Fashion+Week+Fall+2006](http://www.livingly.com/runway/John+Galliano/Paris+Fashion+Week+Fall+2006))

검색일:2017.10.05.



<그림 19> 2007 S/S Paris

John Galliano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8-ready-to-wear/john-galliano)

[g-2008-ready-to-wear/john-galliano](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8-ready-to-wear/john-galliano))

검색일:2017.10.7.



<그림 20> 2010 S/S Paris

John Galliano

([http://ko.orientpalms.com/john-galliano-12](http://ko.orientpalms.com/john-galliano-1242)

[42](http://ko.orientpalms.com/john-galliano-1242))

검색일:2017.10.10.



<그림 21> 2008 F/W Paris
Christian Dior
(<http://www.livingly.com/runway/Christian+Dior/Paris+Fashion+Week+Fall+2008>)
검색일:2017.10.04.



<그림 22> 2016 F/W Couture
Maison Marsela
(<http://ko.orientpalms.com/Maison-Margiela-6248>)
검색일:2017.10.10.

<표 4> 메이크업 형태 요목별 사진

<p>눈 썹</p>	 <p>라인확장형태</p>	 <p>위치이탈형태</p>	 <p>다양한 색상형태</p>	 <p>무 형태</p>	
<p>눈 선</p>	 <p>선과 먼의 형태</p>	 <p>새도우 확장형태</p>	 <p>오브제 변형</p>	 <p>추상적 문양</p>	 <p>무 형태</p>
<p>입 술</p>	 <p>모양변형</p>	 <p>외각라인 왜곡</p>	 <p>이색색상 사용형태</p>	 <p>정상형태</p>	
<p>볼</p>	 <p>다원형태</p>	 <p>이색색상 사용형태</p>	 <p>무 형태</p>	 <p>확장형태</p>	
<p>얼 굴</p>	 <p>패치형태</p>	 <p>구상적 문양</p>	 <p>추상적 문양</p>		

4. 존 갈리아노 패션쇼의 요목에 따른 신뢰도

본 연구는 주관적인 견해를 줄이고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메이크업 분야 박사 이상의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요목을 분류,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목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자료를 3명이 분석한 후, 분석자들 사이의 상호 일치도를 상관계수로 조사하였으며, 산출한 상관관계를 ‘신뢰도 계수’라고 부른다. 이때 종합적 신뢰도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¹²⁰⁾

$$\text{종합적 신뢰도} = \frac{N(\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1 + \{(N-1)(\text{분석자 상호간의 평균 일치도})\}}$$

(N= 분석자의 수)

예를 들면 눈썹의 분석자 수를 전문가 3인의 분석자 A, B, C가 각각 분석한 후 이들 3인의 분석자들 상호 간의 일치 정도를 알아보고 그 결과가 <표 5>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 모든 수치를 합친 이들의 평균치 즉, 분석자들 상호 간의 평균 일치도를 구해보면 0.96이 된다.

<표 5> 3인의 상호간의 일치도 예

	A	B
B	0.98	
C	0.94	0.96

따라서 이 평균치를 위의 식에 대입해 종합적 신뢰도를 계산해보면 $3(0.96) / \{1 + (3-1)(0.96)\}$ 로써 그 값이 0.98로 나온다. 주 요목별 분석자간 일

120) 차배근, 차경옥 (2013),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pp.275~280.

치도는 3인의 일치코딩수를 총 코딩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분석요목의 종류와 종합적 신뢰도의 값

분석요목	종합적 신뢰도
해체주의	0.98
눈썹	0.98
눈	0.97
입술	0.98
볼	1
얼굴	0.97

각 주요목별 일치도는 0.97 이상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IV. 연구결과

1. 전체 특성별 메이크업 요소에 대한 빈도분석

본 연구는 존 갈리아노, 크리스찬 디올, 메종 마르지엘라 모두 각 150장의 사진으로 총 450장의 사진을 <표 7>와 같이 브랜드별 빈도를 정리한 것으로, 각각 33.3%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브랜드별 빈도 분석

(N=450)

구분		빈도	퍼센트
브랜드	존 갈리아노	150	33.3
	크리스찬 디올	150	33.3
	메종 마르지엘라	150	33.3
전체		450	100.0

연도별 빈도분석은 2017년, 2015년, 2016년, 2007년 순으로 많았으며, 2014년이 1.6%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으며, 연도별 빈도를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연도별 빈도 분석

(N=450)

구분		빈도	퍼센트
연도	2005년	29	6.4
	2006년	36	8.0
	2007년	46	10.2
	2008년	40	8.9
	2009년	29	6.4
	2010년	31	6.9
	2011년	36	8.0
	2012년	10	2.2
	2013년	12	2.7
	2014년	7	1.6
	2015년	54	12.0
	2016년	50	11.1
	2017년	70	15.6
전체		450	100.0

해체주의의 특성은 혼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체주의의 특성별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혼적이 19.8%로 가장 많았으며, 의미 불확정성 19.1%, 산중 18.7%, 탈현상 15.6%, 대리보충 14.0%, 차연 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해체주의 특성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해체주의의 특성별 빈도 분석

(N=450)

구분		빈도	퍼센트
해체주의	혼적	89	19.8
	차연	58	12.9
	산중	84	18.7
	대리보충	63	14.0
	의미 불확정성	86	19.1
	탈현상	70	15.6

메이크업 요목을 눈썹, 눈, 입술, 볼, 얼굴로 분류하였으며, 메이크업에 따른 특성별 빈도분석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눈썹에는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무형태, 위치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순이었으며, 눈에서는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선과 면의 형태, 추상적 문양, 오브제의 변형, 무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입술에서는 정상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외각라인 왜곡, 모양변형,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이었으며, 볼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많았고, 확장형태, 타원형태, 무형태 순이었으며, 얼굴은 구상적 문양이 가장 많았으며, 추상적 문양, 패치형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메이크업에 따른 특성별 빈도 분석

(N=450)

	구분	빈도	퍼센트
눈썹	라인확장형태	252	56.0
	위치이탈형태	48	10.7
	다양한 색상형태	34	7.6
	무형태	116	25.8
눈	선과 면의 형태	106	23.6
	새도우 확장형태	178	39.6
	오브제의 변형	49	10.9
	추상적 문양	70	15.6
	무형태	47	10.4
입술	모양변형	60	13.3
	외각라인 왜곡	100	22.2
	이색색상 사용형태	40	8.9
	정상형태	250	55.6
볼	타원형태	17	3.8
	이색색상 사용형태	5	1.1
	무형태	290	64.4
	확장형태	138	30.7
얼굴	패치형태	44	9.8
	구상적 문양	278	61.8
	추상적 문양	128	28.4

2. 연도별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1) 연도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

전체적으로 해체주의 중 흔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의미 불확정성, 산종, 탈현상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5년, 2011년, 2014년에는 흔적이 가장 높았고, 2006년, 2007년, 2008년에는 차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9년, 2010년, 2012년은 대리보충이 높게, 2013년, 2016년에는 탈현상, 2015년, 2017년에는 의미 불확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423.514$, $p<.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해체주의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도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해체주의							전체	x ² (df)	p
	혼적	차연	산중	대리보 충	의미 불 확정성	탈현상				
연 도	2005	10	5	4	2	6	2	29	423.514***	.000
		34.5%	17.2%	13.8%	6.9%	20.7%	6.9%	100.0%		
	2006	3	12	8	2	6	5	36		
		8.3%	33.3%	22.2%	5.6%	16.7%	13.9%	100.0%		
	2007	3	12	10	9	3	9	46		
		6.5%	26.1%	21.7%	19.6%	6.5%	19.6%	100.0%		
	2008	1	14	6	5	7	7	40		
		2.5%	35.0%	15.0%	12.5%	17.5%	17.5%	100.0%		
	2009	7	0	1	14	6	1	29		
		24.1%	0.0%	3.4%	48.3%	20.7%	3.4%	100.0%		
	2010	7	4	0	15	2	3	31		
		22.6%	12.9%	0.0%	48.4%	6.5%	9.7%	100.0%		
	2011	20	2	0	6	8	0	36		
		55.6%	5.6%	0.0%	16.7%	22.2%	0.0%	100.0%		
	2012	2	0	0	8	0	0	10		
		20.0%	0.0%	0.0%	80.0%	0.0%	0.0%	100.0%		
	2013	2	0	0	0	0	10	12		
		16.7%	0.0%	0.0%	0.0%	0.0%	83.3%	100.0%		
	2014	7	0	0	0	0	0	7		
		100.0%	0.0%	0.0%	0.0%	0.0%	0.0%	100.0%		
2015	11	9	4	2	18	10	54			
	20.4%	16.7%	7.4%	3.7%	33.3%	18.5%	100.0%			
2016	6	0	10	0	12	22	50			
	12.0%	0.0%	20.0%	0.0%	24.0%	44.0%	100.0%			
2017	10	0	41	0	18	1	70			
	14.3%	0.0%	58.6%	0.0%	25.7%	1.4%	100.0%			
전체		89	58	84	63	86	70	450		
		19.8%	12.9%	18.7%	14.0%	19.1%	15.6%	100.0%		

*** p<.001

2) 연도별 메이크업의 요목 특성 차이

(1) 연도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

눈썹 형태는 전체적으로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무형태, 위치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2005년~2014년까지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2015년~2017년까지는 무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chi^2=226.006, p < .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 눈썹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연도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

교차분석		눈썹 형태				전체	χ^2 (df)	p
		라인확장형태	위치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무형태			
연 도	2005	15	9	4	1	29	226.006***	.000
		51.7%	31.0%	13.8%	3.4%	100.0%		
	2006	25	3	0	8	36		
		69.4%	8.3%	0.0%	22.2%	100.0%		
	2007	23	18	0	5	46		
		50.0%	39.1%	0.0%	10.9%	100.0%		
	2008	20	4	5	11	40		
		50.0%	10.0%	12.5%	27.5%	100.0%		
	2009	20	6	1	2	29		
		69.0%	20.7%	3.4%	6.9%	100.0%		
	2010	27	2	2	0	31		
		87.1%	6.5%	6.5%	0.0%	100.0%		
	2011	34	2	0	0	36		
		94.4%	5.6%	0.0%	0.0%	100.0%		
	2012	10	0	0	0	10		
		100.0%	0.0%	0.0%	0.0%	100.0%		
	2013	11	0	0	1	12		
91.7%		0.0%	0.0%	8.3%	100.0%			
2014	7	0	0	0	7			
	100.0%	0.0%	0.0%	0.0%	100.0%			
2015	17	2	4	31	54			
	31.5%	3.7%	7.4%	57.4%	100.0%			
2016	18	0	13	19	50			
	36.0%	0.0%	26.0%	38.0%	100.0%			
2017	25	2	5	38	70			
	35.7%	2.9%	7.1%	54.3%	100.0%			
전체		252	48	34	116	450		
		56.0%	10.7%	7.6%	25.8%	100.0%		

*** $p < .001$

(2) 연도별 눈 형태 특성 차이

눈 형태는 전체적으로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과 면의 형태, 추상적 문양, 오브제의 변형, 무형태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눈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2005년~2014년, 2017년에는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고, 2015년에는 오브제의 변형이 가장 높게, 2013년, 2016년에는 추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8년에서 무형태가 가장 낮았다.($\chi^2=280.213$, $p<.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 눈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연도별 눈 형태 특성 차이

		눈 형태					전체	χ^2 (df)	p
교차분석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 문양	무형태			
연 도	2005	10	14	4	0	1	29	280.213***	.000
		34.5%	48.3%	13.8%	0.0%	3.4%	100.0%		
	2006	8	20	7	0	1	36		
		22.2%	55.6%	19.4%	0.0%	2.8%	100.0%		
	2007	11	14	6	10	5	46		
		23.9%	30.4%	13.0%	21.7%	10.9%	100.0%		
	2008	13	13	13	1	0	40		
		32.5%	32.5%	32.5%	2.5%	0.0%	100.0%		
	2009	4	25	0	0	0	29		
		13.8%	86.2%	0.0%	0.0%	0.0%	100.0%		
	2010	9	14	0	8	0	31		
		29.0%	45.2%	0.0%	25.8%	0.0%	100.0%		
	2011	5	28	0	3	0	36		
		13.9%	77.8%	0.0%	8.3%	0.0%	100.0%		
	2012	0	10	0	0	0	10		
		0.0%	100.0%	0.0%	0.0%	0.0%	100.0%		
	2013	2	0	0	10	0	12		
16.7%		0.0%	0.0%	83.3%	0.0%	100.0%			
2014	0	5	0	0	2	7			
	0.0%	71.4%	0.0%	0.0%	28.6%	100.0%			
2015	17	1	18	12	6	54			
	31.5%	1.9%	33.3%	22.2%	11.1%	100.0%			
2016	9	12	1	16	12	50			
	18.0%	24.0%	2.0%	32.0%	24.0%	100.0%			
2017	18	22	0	10	20	70			
	25.7%	31.4%	0.0%	14.3%	28.6%	100.0%			
전체		106	178	49	70	47	450		
		23.6%	39.6%	10.9%	15.6%	10.4%	100.0%		

*** $p<.001$

(3) 연도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

입술 형태는 전체적으로 정상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외각라인 왜곡, 모양변형,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4>와 같다.

2009년에는 모양변형이 가장 높게, 2010년, 2011년에는 외각라인 왜곡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정상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chi^2=135.884$, $p<.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며, 입술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연도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

교차분석	입술 형태				전체	χ^2 (df)	p	
	모양변형	외각라인 왜곡	이색색상 사용형태	정상형태				
연 도	2005	4 13.8%	3 10.3%	4 13.8%	18 62.1%	135.884***	.000	
	2006	2 5.6%	10 27.8%	7 19.4%	17 47.2%			
	2007	8 17.4%	9 19.6%	3 6.5%	26 56.5%			
	2008	1 2.5%	8 20.0%	1 2.5%	30 75.0%			
	2009	13 44.8%	8 27.6%	1 3.4%	7 24.1%			
	2010	11 35.5%	13 41.9%	3 9.7%	4 12.9%			
	2011	1 2.8%	16 44.4%	4 11.1%	15 41.7%			
	2012	0 0.0%	0 0.0%	0 0.0%	10 100.0%			
	2013	0 0.0%	0 0.0%	0 0.0%	12 100.0%			
	2014	0 0.0%	0 0.0%	0 0.0%	7 100.0%			
	2015	1 1.9%	12 22.2%	0 0.0%	41 75.9%			
	2016	11 22.0%	5 10.0%	9 18.0%	25 50.0%			
	2017	8 11.4%	16 22.9%	8 11.4%	38 54.3%			
	전체	60 13.3%	100 22.2%	40 8.9%	250 55.6%			450 100.0%

*** $p<.001$

(4) 연도별 볼 형태 특성 차이

볼 형태는 전체적으로 무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확장형태,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연도별 볼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2007년, 2009년, 2010년에는 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2012년에는 무형태,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다. 또한 나머지 연도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chi^2=142.497$, $p<.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 볼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연도별 볼 형태 특성 차이

교차분석	볼 형태				전체	χ^2 (df)	p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무형태	확장형태						
연 도	2005	3 10.3%	0 0.0%	17 58.6%	9 31.0%	29 100.0%	142.497***	.000		
	2006	3 8.3%	0 0.0%	25 69.4%	8 22.2%	36 100.0%				
	2007	6 13.0%	2 4.3%	14 30.4%	24 52.2%	46 100.0%				
	2008	0 0.0%	0 0.0%	33 82.5%	7 17.5%	40 100.0%				
	2009	1 3.4%	0 0.0%	5 17.2%	23 79.3%	29 100.0%				
	2010	0 0.0%	0 0.0%	11 35.5%	20 64.5%	31 100.0%				
	2011	2 5.6%	0 0.0%	21 58.3%	13 36.1%	36 100.0%				
	2012	0 0.0%	0 0.0%	5 50.0%	5 50.0%	10 100.0%				
	2013	0 0.0%	0 0.0%	12 100.0%	0 0.0%	12 100.0%				
	2014	0 0.0%	0 0.0%	5 71.4%	2 28.6%	7 100.0%				
	2015	2 3.7%	0 0.0%	46 85.2%	6 11.1%	54 100.0%				
	2016	0 0.0%	3 6.0%	37 74.0%	10 20.0%	50 100.0%				
	2017	0 0.0%	0 0.0%	59 84.3%	11 15.7%	70 100.0%				
	전체	17 3.8%	5 1.1%	290 64.4%	138 30.7%	450 100.0%				

*** $p<.001$

(5) 연도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얼굴 형태는 전체적으로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추상적 문양, 패치형태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2013년, 2015년에는 추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나머지 연도에서는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chi^2=152.044$, $p<.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차이가 있고, 얼굴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연도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얼굴 형태			전체	χ^2 (df)	p			
	패치형태	구상적 문양	추상적 문양						
연 도	2005	3 10.3%	19 65.5%	7 24.1%	29 100.0%	152.044***	.000		
	2006	0 0.0%	23 63.9%	13 36.1%	36 100.0%				
	2007	5 10.9%	27 58.7%	14 30.4%	46 100.0%				
	2008	14 35.0%	20 50.0%	6 15.0%	40 100.0%				
	2009	0 0.0%	23 79.3%	6 20.7%	29 100.0%				
	2010	0 0.0%	19 61.3%	12 38.7%	31 100.0%				
	2011	0 0.0%	33 91.7%	3 8.3%	36 100.0%				
	2012	0 0.0%	10 100.0%	0 0.0%	10 100.0%				
	2013	0 0.0%	2 16.7%	10 83.3%	12 100.0%				
	2014	0 0.0%	7 100.0%	0 0.0%	7 100.0%				
	2015	17 31.5%	12 22.2%	25 46.3%	54 100.0%				
	2016	1 2.0%	26 52.0%	23 46.0%	50 100.0%				
	2017	4 5.7%	57 81.4%	9 12.9%	70 100.0%				
	전체	44 9.8%	278 61.8%	128 28.4%	450 100.0%				

*** $p<.001$

3. 브랜드별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1) 브랜드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

존 갈리아노 브랜드에서는 흔적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리보충, 탈현상, 산중 순이었다. 크리스찬 디올도 흔적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차연, 의미 불확정성, 대리보충 순이었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산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 흔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x^2=106.04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체주의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표 17> 브랜드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해체주의						전체	x ² (df)	p
		흔적	차연	산중	대리보충	의미 불확정성	탈현상			
브랜드	존 갈리아노	39 26.0%	15 10.0%	21 14.0%	37 24.7%	16 10.7%	22 14.7%	150 100.0%	106.043 [*] **	.000
	디올	37 24.7%	34 22.7%	15 10.0%	24 16.0%	25 16.7%	15 10.0%	150 100.0%		
	메종	13 8.7%	9 6.0%	48 32.0%	2 1.3%	45 30.0%	33 22.0%	150 100.0%		
전체		89 19.8%	58 12.9%	84 18.7%	63 14.0%	86 19.1%	70 15.6%	450 100.0%		

*** $p<.001$

2) 브랜드별 메이크업 요목 특성 차이

(1) 브랜드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

존 갈리아노 브랜드에서는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위치이탈형태, 무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순이었다. 크리스찬 디올도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위치이탈형태, 무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순으로 나타났고, 메종 마르지엘라는 무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라인확장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위치이탈 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x^2=163.486$,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눈썹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8>와 같다.

<표 18> 브랜드별 눈썹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눈썹 형태				전체	x^2 (df)	p
	라인확장형태	위치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무형태			
브랜드	존 갈리아노	115	15	4	16	163.486** *	.000
		76.7%	10.0%	2.7%	10.7%		
	디올	98	30	8	14		
		65.3%	20.0%	5.3%	9.3%		
	메종	39	3	22	86		
		26.0%	2.0%	14.7%	57.3%		
전체	252	48	34	116	450		
	56.0%	10.7%	7.6%	25.8%	100.0%		

*** $p<.001$

(2) 브랜드별 눈 형태 특성 차이

존 갈리아노 브랜드에서는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선과 면의 형태, 추상적 문양, 무형태, 오브제의 변형 순이었다. 크리스찬 디올도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선과 면의 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 문양, 무형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메종 마르지엘라는 추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무형태,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형태, 오브제의 변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chi^2=103.76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고, 눈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눈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표 19> 브랜드별 눈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눈 형태					전체	χ^2 (df)	p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 문양	무형태			
브랜드	존 갈리아노	28 18.7%	79 52.7%	5 3.3%	27 18.0%	11 7.3%	150 100.0%	103.763* .000
	디올	46 30.7%	72 48.0%	25 16.7%	5 3.3%	2 1.3%	150 100.0%	
		메종	32 21.3%	27 18.0%	19 12.7%	38 25.3%	34 22.7%	
전체	106 23.6%	178 39.6%	49 10.9%	70 15.6%	47 10.4%	450 100.0%		

*** $p<.001$

(3) 브랜드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

존 갈리아노 브랜드는 정상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외각라인 왜곡, 모양변형,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이었다. 크리스찬 디올도 정상형태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외각라인 왜곡, 모양변형,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으로 나타났으며, 메종 마르지엘라 역시 정상형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외각라인 왜곡, 모양 변형,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x^2=8.194,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입술 형태는 차이가 없으며,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0>과 같다.

<표 20> 브랜드별 입술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입술 형태				전체	x ² (df)	p
		모양변형	외각라인 왜곡	이색색상 사용형태	정상형태			
브랜드	존 갈리아노	27	31	13	79	150	8.194*	.224
		18.0%	20.7%	8.7%	52.7%	100.0%		
	디올	13	36	10	91	150		
		8.7%	24.0%	6.7%	60.7%	100.0%		
	메종	20	33	17	80	150		
		13.3%	22.0%	11.3%	53.3%	100.0%		
전체		60	100	40	250	450		
		13.3%	22.2%	8.9%	55.6%	100.0%		

* $p>.01$

(4) 브랜드별 볼 형태 특성 차이

존 갈리아노 브랜드는 무형태와 확장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이었으며, 크리스찬 디올은 무형태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확장형태, 타원형태 순이다. 메종 마르지엘라는 무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확장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타원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chi^2=58.65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볼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볼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 브랜드별 볼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볼 형태				전체	x ² (df)	p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무형태	확장형태			
브랜드	존 갈리아노	4	2	72	72	150	58.653***	.000
		2.7%	1.3%	48.0%	48.0%	100.0%		
	디올	11	0	91	48	150		
		7.3%	0.0%	60.7%	32.0%	100.0%		
	메종	2	3	127	18	150		
		1.3%	2.0%	84.7%	12.0%	100.0%		
전체		17	5	290	138	450		
		3.8%	1.1%	64.4%	30.7%	100.0%		

*** $p<.001$

(5) 브랜드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존 갈리아노는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추상적 문양, 패치형태 순이었다. 크리스찬 디올도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추상적 문양, 패치형태 순으로 보여지고 있다. 메종 마르시엘라 역시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추상적 문양, 패치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x^2=39.347,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얼굴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표 22> 브랜드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얼굴 형태			전체	x^2 (df)	p
		패치형태	구상적 문양	추상적 문양			
브랜드	존 갈리아노	6	92	52	150	39.347***	.000
		4.0%	61.3%	34.7%	100.0%		
	디올	16	115	19	150		
		10.7%	76.7%	12.7%	100.0%		
	메종	22	71	57	150		
		14.7%	47.3%	38.0%	100.0%		
전체		44	278	128	450		
		9.8%	61.8%	28.4%	100.0%		

*** $p<.001$

4.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특성

1) 해체주의 특성별 존 갈리아노 브랜드 차이

해체주의 중 흔적은 존 갈리아노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크리스찬 디올, 메종 마르지엘라 순이다. 차연은 크리스찬 디올에서 가장 높게, 산중은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가장 높게, 대리보충은 존 갈리아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의미 불확정성은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가장 높고, 탈현상은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x^2=106.043$,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별 브랜드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은 해체주의 특성에 따라 브랜드 차이를 분류한 표이다.

<표 23> 해체주의 특성별 브랜드 차이

(N=450)

교차분석	브랜드 명			전체	x ² (df)	p
	존 갈리아노	디올	메종			
해체주의	흔적	39	37	13	106.043***	.000
		43.8%	41.6%	14.6%		
	차연	15	34	9		
		25.9%	58.6%	15.5%		
	산중	21	15	48		
		25.0%	17.9%	57.1%		
	대리보충	37	24	2		
58.7%		38.1%	3.2%			
의미 불확정성	16	25	45			
	18.6%	29.1%	52.3%			
탈현상	22	15	33			
	31.4%	21.4%	47.1%			
전체	150	150	150	450		
	33.3%	33.3%	33.3%	100.0%		

*** $p<.001$

2) 해체주의 특성 차이

(1) 해체주의 특성별 연도 차이

해체주의 중 혼적은 해당 기간 전 시기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차연은 2009년, 2012년~2013년, 2016년~2017년에, 또한 산종은 2010년~2014년 사이에, 대리보충은 2013년~2014년, 2016년~2017년 사이에, 의미 불확정성은 2012년~2014년 사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탈현상은 2011년~2012년, 2014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chi^2=423.514,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 특성별 연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특성별 연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표 24> 해체주의 특성별 연도 차이

		연도											(N=450)				
교차분석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χ^2 (df)	p
해체주의	혼적	10 11.2%	3 3.4%	3 3.4%	1 1.1%	7 7.9%	7 7.9%	20 22.5%	2 2.2%	2 2.2%	7 7.9%	11 12.4%	6 6.7%	10 11.2%	89 100.0%	423.514***	.000
	차연	5 8.6%	12 20.7%	12 20.7%	14 24.1%	0 0.0%	4 6.9%	2 3.4%	0 0.0%	0 0.0%	0 0.0%	9 15.5%	0 0.0%	0 0.0%	58 100.0%		
	산종	4 4.8%	8 9.5%	10 11.9%	6 7.1%	1 1.2%	0 0.0%	0 0.0%	0 0.0%	0 0.0%	0 0.0%	4 4.8%	10 11.9%	41 48.8%	84 100.0%		
	대리보충	2 3.2%	2 3.2%	9 14.3%	5 7.9%	14 22.2%	15 23.8%	6 9.5%	8 12.7%	0 0.0%	0 0.0%	2 3.2%	0 0.0%	0 0.0%	63 100.0%		
	의미 불확정성	6 7.0%	6 7.0%	3 3.5%	7 8.1%	6 7.0%	2 2.3%	8 9.3%	0 0.0%	0 0.0%	0 0.0%	18 20.9%	12 14.0%	18 20.9%	86 100.0%		
	탈현상	2 2.9%	5 7.1%	9 12.9%	7 10.0%	1 1.4%	3 4.3%	0 0.0%	0 0.0%	10 14.3%	0 0.0%	10 14.3%	22 31.4%	1 1.4%	70 100.0%		
	전체	29 6.4%	36 8.0%	46 10.2%	40 8.9%	29 6.4%	31 6.9%	36 8.0%	10 2.2%	12 2.7%	7 1.6%	54 12.0%	50 11.1%	70 15.6%	450 100.0%		

*** $p<.001$

(2) 해체주의 특성별 눈썹 형태 차이

해체주의 중 혼적과 차연, 산중, 대리보충은 눈썹형태 중 라인확장형태에서 가장 높았고, 다양한 색상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의미 불확정성은 라인확장형태에서 가장 높게, 위치이탈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탈현상은 무형태에서 가장 높게, 위치이탈형태와 다양한 색상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chi^2=81.561,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 특성별로 눈썹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특성별 눈썹 형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해체주의 특성별 눈썹 형태 차이

(N=450)

교차분석	눈썹 형태				전체	χ^2 (df)	p	
	라인 확장형태	위치 이탈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무형태				
해체주의	혼적	75	4	1	9	81.561***	.000	
		84.3%	4.5%	1.1%	10.1%			100.0%
	차연	28	10	5	15			58
		48.3%	17.2%	8.6%	25.9%			100.0%
	산중	39	9	5	31			84
		46.4%	10.7%	6.0%	36.9%			100.0%
	대리보충	50	8	2	3			63
	79.4%	12.7%	3.2%	4.8%	100.0%			
의미 불확정성	34	9	13	30	86			
	39.5%	10.5%	15.1%	34.9%	100.0%			
탈현상	26	8	8	28	70			
	37.1%	11.4%	11.4%	40.0%	100.0%			
전체	252	48	34	116	450			
	56.0%	10.7%	7.6%	25.8%	100.0%			

*** $p<.001$

(3) 해체주의 특성별 눈 형태 차이

해체주의 중 흔적은 눈 형태 중 새도우 확장형태에서 가장 높았으며, 추상적 문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차연은 오브제의 변형에서 가장 높게, 무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산중은 무형태에서 가장 높으며, 추상적 문양에서 가장 낮았다. 대리보충은 새도우 확장형태에서 가장 높으며, 무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의미 불확정성은 선과 면의 형태와 새도우 확장 형태에서 가장 높게, 무형태에서 가장 낮았다. 탈현상은 선과 면의 형태와 추상적 문양에서 가장 높았으며, 무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x^2=295.733$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 특성별로 눈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특성별 눈 형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6>과 같다.

<표 26> 해체주의 특성별 눈 형태 차이

(N=450)

교차분석	눈 형태					전체	x ² (df)	p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 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 문양	무형태			
해체주의	흔적	11 12.4%	63 70.8%	4 4.5%	0 0.0%	11 12.4%	295.733**	.000
	차연	6 10.3%	21 36.2%	29 50.0%	2 3.4%	0 0.0%		
	산중	18 21.4%	30 35.7%	4 4.8%	1 1.2%	31 36.9%		
	대리보충	16 25.4%	28 44.4%	3 4.8%	16 25.4%	0 0.0%		
	의미 불확정성	27 31.4%	27 31.4%	5 5.8%	23 26.7%	4 4.7%		
	탈현상	28 40.0%	9 12.9%	4 5.7%	28 40.0%	1 1.4%		
	전체	106 23.6%	178 39.6%	49 10.9%	70 15.6%	47 10.4%		

*** $p<.001$

(4) 해체주의 특성별 입술 형태 차이

해체주의 중 혼적은 입술 형태 중 정상형태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색색상 사용형태에서 가장 낮았다. 차연은 정상형태에서 가장 높게, 모양변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중도 정상형태에서 가장 높고, 모양변형에서 가장 낮았다. 대리보충은 외각라인 왜곡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색색상 사용형태에서 가장 낮았다. 의미 불확정성과 탈현상은 정상형태에서 가장 높게, 이색색상 사용 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x^2=46.232,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 특성별로 입술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특성별 입술 형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표 27> 해체주의 특성별 입술 형태 차이

(N=450)

교차분석	입술 형태				전체	x ² (df)	p
	모양변형	외각라인 왜곡	이색색상 사용형태	정상형태			
해체주의	혼적	5 5.6%	15 16.9%	3 3.4%	66 74.2%	46.232***	.000
	차연	4 6.9%	10 17.2%	5 8.6%	39 67.2%		
	산중	11 13.1%	20 23.8%	13 15.5%	40 47.6%		
	대리보충	12 19.0%	25 39.7%	5 7.9%	21 33.3%		
	의미 불확정성	12 14.0%	15 17.4%	10 11.6%	49 57.0%		
	탈현상	16 22.9%	15 21.4%	4 5.7%	35 50.0%		
	전체	60 13.3%	100 22.2%	40 8.9%	250 55.6%		

*** p<.001

(5) 해체주의 특성별 불 형태 차이

해체주의 중 흔적은 불 형태 중 무형태에서 가장 높았고, 타원형태나 이색색상 사용형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차연은 무형태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색색상 사용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산중은 무형태에서 가장 높게, 타원형태나 이색색상 사용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리보충은 확장형태에서 가장 높으며, 이색색상 사용형태에서는 가장 낮았다. 의미 불확정성과 탈현상 둘 다 무형태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색색상 사용형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x^2=60.634$,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 특성별로 불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특성별 불 형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8>과 같다.

<표 28> 해체주의 특성별 불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불 형태				전체	x^2 (df)	p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무형태	확장형태				
해체주의	흔적	0 0.0%	0 0.0%	53 59.6%	36 40.4%	89 100.0%	60.634***	.000
	차연	7 12.1%	0 0.0%	34 58.6%	17 29.3%	58 100.0%		
	산중	0 0.0%	0 0.0%	68 81.0%	16 19.0%	84 100.0%		
	대리보충	3 4.8%	2 3.2%	24 38.1%	34 54.0%	63 100.0%		
	의미 불 확정성	2 2.3%	1 1.2%	65 75.6%	18 20.9%	86 100.0%		
	탈현상	5 7.1%	2 2.9%	46 65.7%	17 24.3%	70 100.0%		
		17 3.8%	5 1.1%	290 64.4%	138 30.7%	450 100.0%		

*** $p<.001$

(6) 해체주의 특성별 얼굴 형태 차이

해체주의 중 혼적은 얼굴 형태 중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았으며, 패치형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차연과 산종은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추상적 문양이 가장 낮았다. 대리보충과 의미 불확정성은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으며, 패치형태가 가장 낮았고, 탈현상은 추상적 문양이 가장 높게, 패치형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x^2=192.784$, $p<.05$). 따라서, 각 해체주의 특성별로 얼굴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체주의 특성별 얼굴 형태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29>와 같다.

<표 29> 해체주의 특성별 얼굴 형태 특성 차이

(N=450)

교차분석	얼굴 형태			전체	x^2 (df)	p	
	패치형태	구상적 문양	추상적 문양				
해체주의	혼적	0	85	4	192.784***	.000	
		0.0%	95.5%	4.5%			100.0%
	차연	20	26	12			58
		34.5%	44.8%	20.7%			100.0%
	산종	10	69	5			84
		11.9%	82.1%	6.0%			100.0%
	대리보충	2	40	21			63
		3.2%	63.5%	33.3%			100.0%
	의미 불확정성	9	45	32			86
		10.5%	52.3%	37.2%			100.0%
탈현상	3	13	54	70			
	4.3%	18.6%	77.1%	100.0%			
전체	44	278	128	450			
	9.8%	61.8%	28.4%	100.0%			

*** $p<.001$

5. 상관 관계 분석

눈썹과 눈, 입술, 볼, 얼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눈썹과 눈($x^2=.225$, $p<.05$), 볼($x^2=-.122$, $p<.05$)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관계의 방향은 달랐으며, 그 결과는 <표 30>과 같다. 눈은 얼굴($x^2=.106$,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입술은 얼굴($x^2=-.106$, $p<.0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각 상관관계 분석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눈썹	눈	입술	볼	얼굴
눈썹	Pearson 상관	1				
눈	Pearson 상관	.225**	1			
입술	Pearson 상관	.032	-.068	1		
볼	Pearson 상관	-.122**	-.081	-.032	1	
얼굴	Pearson 상관	.010	.106*	-.173**	.020	1

* $p<.01$, ** $p<.05$

V. 결 론

본 연구는 해체주의 특성이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 요소에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체주의의 개념과 특성을 고찰하고,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 분석은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 메이크업에서 해체주의 특성을 나누고, 눈썹, 눈, 입술, 볼, 얼굴로 요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 자료는 해체주의 특성이 잘 나타난 메이크업 사진자료를 존 갈리아노가 자신의 고유 브랜드로 활약했던 13년간의 150장사진, 존 갈리아노가 크리스찬 디올 브랜드에 수석디자이너로 활동하였던 7년간의 150장 사진, 존 갈리아노가 메종 마르지엘라에서 활동한 3년간의 150장사진 총 450장의 사진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여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요목을 분석하였다. 연구 범위를 이처럼 설정하고 작품 선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위해 전문가 3인에 의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의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의 특성이 잘 나타난 이미지를 패션쇼에서 자료를 도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존 갈리아노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의 연도별 빈도분석을 보았을 때, 2017년, 2015년, 2016년, 2007년 순이었고, 2014년이 1.6%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해체주의의 특성별 빈도분석은 흔적이 19.8%로 가장 많았으며, 차연이 12.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메이크업 특성별 빈도분석은 눈썹 메이크업에 라인확장형태가, 눈에서는 새도우 확장형태가, 입술에서는 정상형태가 가장 많았다. 또한, 볼에서는 무형태가, 얼굴은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도별 해체주의 특성 차이는 전체적으로 해체주의 중 혼적이 가장 높았으며, 차연이 가장 낮게 표현되었고, 연도별로는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x^2=423.514$, $p<.05$). 따라서, 각 연도별로 해체주의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브랜드별 메이크업 요목 중 눈썹 형태는 존 갈리아노와 디올 브랜드 활동시 라인확장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치이탈형태, 무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순이었다. 메종의 경우 무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라인확장형태, 다양한 색상형태, 위치이탈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x^2=163.486$,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눈썹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눈 형태는 존 갈리아노에서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선과 면의 형태, 추상적문양, 무형태, 오브제의 변형 순이었다. 디올에서도 새도우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과 면의 형태, 오브제의 변형, 추상적문양, 무형태 순이었고, 메종은 추상적문양, 무형태, 선과 면의 형태, 새도우 확장형태, 오브제의 변형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x^2=103.76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눈 형태는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술 형태는 존 갈리아노, 디올, 메종 모두 정상형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외각라인 왜곡, 모양변형,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으로 모든 집단에서 동일한 선호도를 나타내고 있다($x^2=8.194$,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입술 형태는 차이가 없으며,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볼 형태는 존 갈리아노에서 무형태와 확장형태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타원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순이었다. 디올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확장형태, 타원형태 순이었고, 메종에서는 무형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확장형태, 이색색상 사용형태, 타원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x^2=58.653$,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볼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 형태는 존 갈리아노에서 구상적 문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추상적문양, 패치형태 순이다. 디올과 메종에서는 구상적문양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추상적문양, 패치형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chi^2=39.347$, $p<.05$). 따라서, 각 브랜드별로 얼굴 형태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눈썹과 눈, 입술과 볼, 얼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눈썹과 눈($\chi^2=.225$, $p<.05$), 볼($\chi^2=-.122$, $p<.05$)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상관관계의 방향은 달랐으며, 눈은 얼굴($\chi^2=.106$, $p<.01$)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입술은 얼굴($\chi^2=-.106$, $p<.05$)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은 의상뿐 아니라 메이크업에서도 해체주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결합들은 예측할 수 없는 원리를 만들어 내며 해체주의 특성을 가진 메이크업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국한된 제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존 갈리아노 자신의 고유브랜드와 크리스찬 디올 및 현재 활동 중인 메종 마르지엘라의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메이크업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이미지 분석의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근영 (2011), *여성의 메이크업과 얼굴의 부분별 형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은주 (2008), *패션쇼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 연구: 2003년 이후 존 갈리아노 패션쇼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18(-), pp.121~130.
- 고영은 (2012), *해체주의적 접근을 통한 아트 메이크업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혜영 (2007),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연구: Sasha Waltz와 William Forsythe의 작품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권진영 (2009), *패션트렌드 컬러와 해체주의 패션 컬러의 비교 분석*,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인 (2007),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현대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8(2), pp.732~740.
- 김명섭 (1998), *존 갈리아노의 작품세계와 미적특성*,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13), *John Galliano 작품에 나타난 란제리룩의 특성*,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2), pp.147~159.
- 김성아 (2007), *Paris 컬렉션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해체주의: 2001~2007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아, 공차숙 (2008),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불확정성 디자인*, *한국인체예술학회지*, 9(2), pp.33~46.

- 김성아, 김희숙 (2008), Paris 컬렉션의 해체주의 헤어스타일에 표현된 탈현상에 관한 연구: 2001~2007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인체예술학회지*, 9(1), pp.36~52.
- 김성찬 (2016), *효제문자도의 그래픽디자인 요소로서 해체적 성향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유정, 함수정, 진용미 (2015), 해체주의 건축, 패션, 메이크업의 작품을 응용한 헤어디자인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1), pp.111~120.
- 김은경 (2001), *해체주의적 공간 구성에 나타나는 꼴라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 (2009),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2(-), pp.79~92.
- 김지연, 김현주 (2008), 패션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포럼*, 21(-), pp.41~54.
- 김주현, 권미정, 이순자 (1999),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8.
- 김초롱 (2017), *트라이벌무드 패션 경향 및 표현 특성을 응용한 아트메이크업 개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1990년대 후반 캣워크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0), *금속을 활용한 헤어아트 표현연구*,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연 (2013),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바디아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1997),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선옥 (1999),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1997~1999년도 패션쇼를 중심으로, *한국미용학회지*, 5(1),
pp.209~229.
- 마정혜 (2008), 자크테리다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적용한 박물관 사례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3(1), pp.39-47.
- 박민경 (2008), *존 갈리아노의 패션에 나타난 공간적 퓨전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 (2006), *알렉산더 맥퀸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
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신 (2013), 패션쇼 메이크업의 아방가르드 이미지 표현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1(1), pp.185~192.
- 방기정 (2011), *하이브리드의 탈 장르화를 응용한 메이크업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수진 (2009), 아트메이크업에 표현된 오브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II:
Christian Dior 패션쇼를 중심으로, *한국미용예술학회지*,
3(1), pp.49~58.
- 방수진 (2007), *자크테리다의 해체 이론적 특성이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방수진 (2008), 현대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요소에 관한 변화양상 연구: 오뚜
꾸뜨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코리아뷰티디자인학회지*, 4(1), pp.
97~113.
- 성광숙 (2009),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에 나타난 헤드웨어의 디자인 특성,
한국패션비즈니스, 13(4), pp.163~177.
- 송연재 (2017), *컬렉션 메이크업의 형태 분석 및 키치의 미적특성*, 성신여자
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나리 (2015),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아트마스크 작품연구: 프랭크 게리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디자인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정희 (2005), *패션쇼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메이크업 연구: 90년대 이후 패션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숙원 (2010), *해체주의 탈현상을 응용한 니트웨어 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은 (2007), *메이크업에 나타난 아방가르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01년~2005년 파리 컬렉션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래 (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교보문고.
- 이귀영 (2008), *존 갈리아노의 패션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귀영, 조규화 (2009),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 13(2), pp.50~65.
- 이미자 (2009), *해체주의 표현기법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0~2008년 4대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봉 (2006), *존 갈리아노 패션쇼에 표현된 메이크업 연구: 2000년 봄/여름~2006년 가을/겨울*,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7(3), pp.137~156.
- 이수현 (2010), *로맨틱 아방가르드의 미적특성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주 (2005),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 트렌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재 (2000), *1990년대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용창 (2015), *해체주의 건축 관점에서 본 프랭크 게리 건축 특징을 적용한 뮤지엄 계획안*,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열, 구자명 (2005),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한국 의류학회지*, 29(3), pp.414~424.
- 이정아 (2002),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아, 홍정민 (2003),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6(3), pp.27~39.
- 임정미 (2006), *바디아트의 질감표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연 (2016), *롤랑 바르트 의미작용에 따른 존 갈리아노 컬렉션 메이크업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융합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연아 (2016), *현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디자인 조형성 연구*,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승희 (2010), *2000년대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디자인의 이국적 이미지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여리 (2016), *현대 컬렉션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패션 메이크업 디자인 연구: 2011년부터 2016년 패션 컬렉션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미용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 (2003), *현대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희 (2009), *패션하우스 디자인의 아이덴티티: Dior Balenciaga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민희 (2008), *자크 데리다(J. Derrida)의 해체주의와 법여성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 차경옥 (2013),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최은희 (1998), *해체주의 건축의 시공간개념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램 콜하스와 굽 힌펠브라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정 (2012), *오브제를 응용한 바디아트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보현 (2009),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얼굴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수정 (2016), *해체주의 특성을 응용한 창작토탈패션 디자인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연정 (2004),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동양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진영 (2014),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체의 방법을 적용한 패션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Hugh J. Silverman, 윤호병 역 (1998), *데리다와 해체주의: 철학과 사상*, 서울: 현대미학사.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D%95%B4%EC%B2%B4%EC%A3%BC%EC%9D%98>, (검색일: 2017.09.01.)
- 구글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D%98%B8%ED%85%8D%EC%8A%A4%ED%8A%B8%EC%84%B1>, (검색일: 2017.09.08.)
- 네이버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9790&cid=41799&categoryId=41800>, (검색일: 2017.09.08.)
- 네이버 색채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0959&cid=42641&categoryId=42641>, (검색일: 2017.09.01.)
- 네이버 캐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734&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10.21.)
- 네이버 캐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734&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10.27.)
- 네이버 캐스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734&cid=58794&categoryId=59126>, (검색일: 2017.10.27.)

네이버 학문명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54494&cid=44415&categoryId=44415>, (검색일:2017.09.11.)

Livingly, <http://www.livingly.com/designer/John+Galliano>, (검색일:2017.08.20.~2017.10.27.)

Orient palms, <http://ko.orientpalms.com/john-galliano>, (검색일:2017.08.20.~2017.10.27.)

Vogue, <https://www.vogue.com/fashion-shows/designer/john-galliano>, (검색일:2017.08.20.~2017.10.27.)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 in John Galliano Fashion show Make-up

Ju-Hyun Kim

Make-up · Special Effect Make-up Major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Beauty
Sungshin University

Deconstructionism has spread among literature, art, and movie criticism; and through the modern deconstruction, art has been expressed in various ways by being deconstructed, differentiated, and recombined, a phenomenon which is getting more attention.

Deconstruction make-up, which emerged from the conservative make-up, aims toward an open society; expresses and recognizes destructibility, difference, decentralization, and incongruity; and destructs and then restricts the face, a modeling element.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to become a baseline data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in make-up by studying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the John Galliano fashion show make-up, and by analyzing the conspectus of make-up through the characteristic of deconstructionism drawn.

Total of 450 photos of John Galliano's fashion show make-up from 2005 to 2017 were chosen, which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periods: from 2005 to 2011, when John Galliano worked using his own brand; from 2005 to 2011, when he worked as the Principal Designer in Christian Dior; and from 2015 to the present, in which he works as the Principal Designer in Maison Margiela. The selected photos were categorized into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trace, difference, dissemination, supplement, indeterminacy, and decomposition—and the conspectus of make-up were divided into eyebrows, eyes, lips, cheeks, and faces.

After dra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ism and analyzing the divided photos' conspectuses of make-up, the relationship among conspectuses, and differences among periods were analyzed.

In this experiment, SPSS 23.0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is, and Pearson's chi-square test and cross analysis were used to obtain frequency, percentage, mean, differences among periods, and relationship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John Galliano's fashion show make-up and the conspectus of make-up is the following.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were observed in the following order, from most frequent to least frequent: trace, indeterminacy, dissemination, decomposition, supplement, and difference.

In eyebrows, line extension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various color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eyes, it was observed that the shadow extension type had the highest rate, and no type has the lowest rate; In lips, normal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type of using two more col

or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cheeks, no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two-tone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and finally, in faces, figurative pattern was most frequently, and patch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Second, when the deconstructionism was categorized into brands, trace(2.60%)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in John Galliano, trace(24.7%)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in Christian Dior as well, and dissemination(32.0%) was most frequently observed in Maison Margiela($\chi^2=106.043$, $p<.05$). So, it can be known tha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brands, thus the deconstructionism has correlation.

When categorizing the eyebrows into brands, line extension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various color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John Galliano and Dior. In Mason, no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the off-location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chi^2=163.486$, $p<.05$).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brands, thus the eyebrows make-ups have correlation. For eyes, shadow extension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deformation of the objet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John Galliano, shadow extension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no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Dior, and the abstract pattern was most frequently and deformation of the objet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Mason($\chi^2=103.763$, $p<.05$). Therefore, it can be known tha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brands, thus the eye make-ups have correlation. For lips, normal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two-tone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all three brands($\chi^2=8.194$, $p>.05$). So, it can be known that there is no statistical difference among brands, and the

lip make-up is independent of brands. For cheeks, extension type and no type were most frequently and two-tone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John Galliano, and no type was most frequently and two-tone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Dior and Mason ($\chi^2=58.653$, $p<.05$). For faces, figurative pattern was most frequently and patch type was least frequently observed in all three brands ($\chi^2=39.347$, $p<.05$). So, it can be known that there ar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brands, thus the cheeks and face make-ups have correlation.

Third, when the Pearson product moment correlation was calculated to understand each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mong eyebrows, eyes, lips, cheeks, and faces are that eyebrows had relationship with both eyes ($\chi^2=.225$, $p<.05$) and cheeks ($\chi^2=-.122$, $p<.05$), but the direction of this relationship was different; eyes had relationship with faces ($\chi^2=.106$, $p<.01$); and lips had relationship with faces ($\chi^2=-.173$, $p<.05$).

For such a reason, make-up from John Galliano's fashion show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and represents the potential of make-up with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onism. Thus, we expect further progression of this experiment with imag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constructionism expressed in the fashion show make-up.

<부록 1> 해체주의 특성과 메이크업 형태적 표현요소 분석시트

1. 일련번호													
2. 브랜드명	1. 존 갈리아노 2. 디오르 3. 메종												
3. 해당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4. 해체주의	1. 흔적 2. 차연 3. 산중 4. 대리보충 5. 의미 불확정성 6. 탈 현상												
연구문제													
눈썹	1. 라인확장 형태 2. 위치이탈 형태 3. 다양한 색상형태 4. 무형태												
눈	1. 선과 면의 형태 2. 새도우 확장형태 3. 오브제의 변형 4. 추상적 문양 5. 무형태												
입술	1. 모양 변형 2. 외각라인 왜곡 3. 이색색상 사용형태 4. 정상형태												
볼	1. 타원 형태 2. 이색색상 사용형태 3. 무 형태 4. 확장형태												
얼굴	1. 패치 형태 2. 구상적 문양 3. 추상적 문양												